



Creative Pajuiyagi

# 색다른 파주 이야기

글·사진 이기상

파주는  
한반도의 중심지역으로  
삼국시대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역사무대로 역사적 자료가  
풍부한 지역이다.





## 목 차

1. 화석정 소각설의 논쟁에 빠져	6
2. 자유의 다리의 역사를 찾아	11
3. 월릉 지명유래에 대한 소고	17
4. 파주는 부대찌개 원조가 아니다	22
5. 돼지부속의 원조 파주	24
6. 공릉천을 지키는 공천수	26
7. 자유로의 통일대전을 찾아서	28
8. 파주 경의선 이야기 1	33
9. 파주 경의선 이야기 2	40
10. 통일로 기행1	48
11. 통일로 기행2	51
12. 통일로 기행3	53
13. 금촌 피난촌 겨울나기	57
14. 백년역사 오류가 있는 고려벽화묘	62
15. 쿠테타의 본거지 임진강의 덕진산성	67
16. 고려시대 국립호텔 혜음원지를 찾아서	72

17.백성에게 의술을 다한 허준 선생묘를 가다	79
18.은둔의 역사가 서린 감악산의 인물	83
19.장희빈을 밀어 낸 소령원을 찾아	87
파주의 여인들	
20.기생홍랑의 지독한 사랑	91
21.화완옹주가 사랑한 권력	93
22.조선을 바꾸 여인 정난정	99

## 프롤로그

파주는 한반도의 중심지역으로 삼국시대부터 현대사까지 다양한 역사무대로 역사적 자료가 풍부한 지역이다.

20여년전 시청 문화재 관련 부서에 근무하면서 파주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갖게되어 2003년 '파주이야기'라는 사이트를 만들게 되었다.

그동안 현지답사를 하면서 썼던 글을 다시 모아보았다. 지역에 많은 사료가 있지만 아직 발굴되지 않거나 한 번 발표된 문헌은 새롭게 연구되거나 업그레이드 되지 않은 것 같다.

앞으로 기존에 발표되었던 글이나 사료라 하더라도 새로운 자료나 주장이 있으면 "색다른 파주이야기" 로 담아내려고 한다.

2017년 6월에 이 기 상



표지사진설명  
이 조형물은 동서대학교 교수와 제자들이 민통선내  
해마루촌의 평화마을 디자인 사업으로 만들었다

## 화석정 소각설의 논쟁에 빠져

파주의 임진강에는 조선시대에 서울과 의주의 국도1호를 잇는 임진나루가 있었다. 이곳 임진나루는 현재 문산읍 임진리에 위치하고 임진철교가 세워지기 전까지는 남과 북을 연결하는 국도1호선의 도강구간이었다.

이곳 임진나루는 임진왜란 당시 선조가 왜군의 공격을 피해 한양을 버리고 북쪽으로 피난 갈때 급하게 도하했던 아픈 역사가 있는 곳이다. 그러나 임진왜란이 일어 난지 4백여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선조가 도하할 때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불태운 건물이 화석정이라는 것과 임진나루의 건물이라는 기록이 서로 대치하며 다르게 전해지고 있다.

앞으로 이 글에서는 편의상 화석정을 태워서 불을 밝혔다는 것을 '화석정 소각설'이라하고 임진나루에 있는 승정(乘亭 :선사 관리 건물)의 누각을 태웠다는



기록을 "임진나루 소각설"이라고 할 것이다.

임진왜란 당시 화석정을 소각했다는 것은 대부분의 국민이 알고 있는 이야기이다. 1592년(선조 25년) 4월30일 선조 임금이 벽제~혜음령을 지나 임진나루에 도착 했을 때 비가 억수같이 내려 주변이 칠흑 같이 어두워

제대로 방향을 잡을 수 없었다. 그때 임진나루 주변에 있는 화석정에 불을 붙여 뱃길을 밝히고 임진강을 건넜다는 것이다.

이 화석정은 1581년 당파 싸움이 치열했던 선조때 서인의 주장인 이이가 십만 양병설을 주장했다가 동인인 유성룡이 반대로 무산되고 파직되면서 낙향한 곳이다. 이때 이이는 임진왜란을 예견하고 제자들에게 화석정이 불에 잘 타도록 기둥과 서까래에 들기름을 반질반질하게 바르도록 했다고 한다. 그러나 임진왜란에 대하여 저술한 유성룡의 징비록에는 화석정 소각설과 다르게 임진나루에 있는 승정 건물을 헐어 목재를 불태워 뱃길을 밝히고 왜군이 뗏목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였다고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기술해 놓았다.

징비록은 임진왜란 당시의 전란의 원인과 전황, 실책들을 기록한 전란사로 임진왜란의 원인과 과정 그리고 자신의 잘못과 조정의 실책,백성들의 임금과 조정

에 대한 원망 등을 담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보제 132호로 지정되어 있다.

화석정을 불태웠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기록으로 남겨 놓은 정사도 개인의 입장에 따라 사실을 왜곡하여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유성룡이 기록한 징비록의 내용도 사실이 아닐 수 있어 믿을 수 없고 민간에 널리 퍼져 있는 화석정 소각설을 신뢰한다고 말한다.

선조가 임진강을 도하할때 화석정이나 승정을 소각하여 조명을 비추게 한 사건은 어느 건물 태웠는지의 사실 여부를 떠나서 기록된 역사를 보는 관점이 중요한 논란을 일으키게 하는 원인이다.

이 사건에 대하여 역사학자들도 화석정 소각설과 임진나루 소각설에 대하여 진위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힌 내용은 찾기 어렵다. 따라서 이 논쟁은 상대방의 역사관 탓으로 돌리며 또 하나의 역사 속으로 흘러갈 수가 있다.

역사는 객관적 사실로서의 역사와 이를 토대로 역사가

가가 주관적으로 재구성한 역사의 두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고 한다. 지금은 그 당시를 더 합리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시점이다. 상반되는 두 측면 중에 객관적인 사실에 대하여 이 소각설을 재조명 하려고 한다.



임진진고지도 - 성벽과 누각

임진나루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 임진나루 맞으편의 동파나루는 퇴적층이 있는 곳으로 거리가 가깝지만 수심이 깊고 물살은 빠른 곳이다 또한 화



석정이 위치한 상류에는 수직에 가까운 적벽이 있고 임진나루의 하류에는 경사도가 가파른 산과 강폭이 넓게 형성되어 있다.

임진나루는 강과 인접해 있으며 화석정은 적벽 상단보다 높은 산마루에 위치되어 있어 강변보다 60~70M 정도 높은 곳에 위치한다. 강 북단에 있는 동파나루에서 임진나루와 거리는 314M, 동파나루에서 화석정까지의 거리는 678M 이 격되어 있다.





동파나루에서 본 화석정 원경



현재 임진나루전경

강 북단에 위치한 동파나루는 문헌이나 고지도에 나타나지가 않아 대동여지도에 동파역이 하류방향에 위치한 것을 미루어 임진나루와 직선 거리에 있을 것으로 추정하여 거리를 측정하였다.

1592년 4월30일 선조가 임진강을 건너는 날은 비가 억수 같이 내려 어둡기 때문에 가시거리가 짧아 지척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이었다고 한다. 이 정도의 상황이면 가시거리가 50미터 이내일 수 있다.

요즘 시대 기준으로 보면 보통 안개로 가시 거리가 제한 되는 기준을 1km 이상

으로 정하고 있다. 또 안개로 비행기의 이착륙이 금지되는 가시거리는 공항의 등급에 따라 차이는 나지만 인천공항의 경우 200m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그날 비가 억수같이 온다는 날의 저녁때라면 가시거리는 상당히 짧았을 것이다. 화석정이 거의 7백여m 떨어져 있고 70미터 이상의 고도에 위치해 있어 사실상 화석정을 소각하여 임진나루에 영향을 줄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왜군이 추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석정을 소각하기 위해 사람을 보내는 데는 산악지형으로 인하여 20여분 이상 소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임진나루에 있는 승정을 소각하는게 훨씬 손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대안 일 것이다.

특히, 왜군이 뗏목을 만들기 위해 임진나루 주변에 있는 건물을 헐어 재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도 승정을 소각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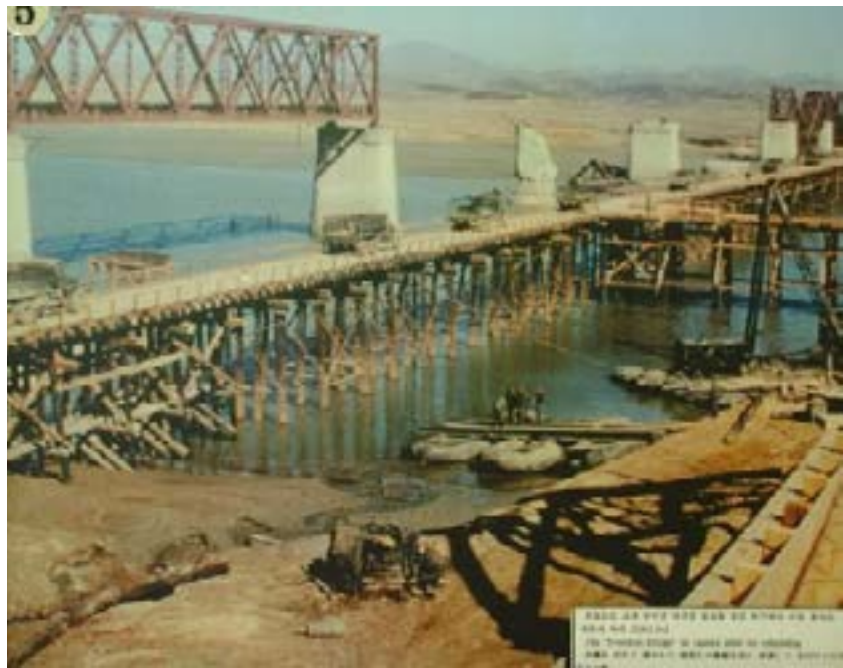
국민 대부분이 알고 있는 화석정 소각설은 객관성에서 임진나루 소각설보다 논리적이거나 과학적이지는 못하다.그러므로 임진나루 소각설이 사실이 확률이 높은 것이다. 확률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반드시 사실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피난 당시 선조 임금의 도하작전을 유성룡과 이이의 제자들이 서로의 입장에 따라 달리 기록했다고 한 것에 대한 논란을 떠나서 어느 설에 더 객관적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역사 기록은 역사가의 관점에 따라 입장이 달라 질 수 있다. 그러나 객관적 사실을 왜곡하면서 선동적으로 역사를 논쟁하는 것은 임진왜란이 한국 역사에서 차지하는 중대성을 망각하는 경우가 될 것이다.(2016.10.3)

## 자유의 다리의 역사를 찾아

자유의 다리는 문산읍 마정리 임진각 광장 앞 망배단 뒤편에 놓인 길이 83m, 폭 4.5~7m, 높이 8m인 목재 다리로 1953년에 한국전쟁 포로 12,773명이 자유를 찾아 귀환하였기 때문에 명명된 다리이다. 포로교환은 정전협정에 따라 판문점에 이루어졌으며 당시 한국은 휴전에 반대하였으므로 협정 당사국이 아니라서 유엔사가 포로를 인수하여 이 자유의 다리 북단까지 트럭으로 수송해 한국군에게 인계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1952년 3월에 촬영된 가설교를 근거로 지금의 자유의 다리는 관광용으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한다. 본래의 자유의 다리는 임진강을 횡단하는 목조 가설교로서 1953년 8월3일부터 9월6일까지 33일 동안 포로교환 당시 이



용되었고 그 후 장마와 홍수로 유실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여러 자료를 통하여 자유의 다리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2005년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발행한 한국

1952년 철교복구전

철도건설백년사에 임진강 교량의 복구공사와 관련된 기록이 남아 있었다. 그 기록에 따르면 임진강 교량은 연장 701.84m의 강철 교량으로서 경간 60.6m의 트러스형 8개와 그 보다 짧은 규모의 18.3m의 판형 10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임진강 철교는 한국전쟁 중에 폭격으로 트러스8개중 3개가 추락되고 5개가 파손되었으며 판형은 1개가 추락되었다. 1951년 7월 10일 개성에서 휴전회담이 시작되면서 전쟁은 국지전으로 전환되었다. 미군은 전쟁의 확전을 원하지

않고 현상태 유지를 희망하면서 같은해 10월25일 휴전회담장을 판문점으로 이동하였고 12월8일에는 쌍방이 포로명단을 교환하였다.

전선이 어느정도 정리되면서 군수물자 수송과 포로교환이 필요하자 미군 당국과 남한의 교통부는 합동으로 1952년 3월 1일부터 임진강 철교를 복구하기 시작해 같은해 6월25일까지 117일간 공사 끝에 복구를 완료하였다.

이 공사는 트러스 1개를 신규 가설하고 2개를 수리하는 것으로 미군 제84공병대대가 하부구조와 아이빔 2개를 설치하는 공사를 맡았다. 공사중에 침몰된 기중기를 교통부 공사사무소 직원이 자발적으로 인양해 주자 5월15일에는 미 8군 사령관이 감사장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이 복구 공사에는공사비 948,148,489환,노력비 332,550,500환, UN군공급재료비 427,589,639환, 교통부부담 재료비 427,589,639환이 소요되었으며 연인원 33,707명이 참여하였는데 재료비는 아마 UN군과 한국이 50:50으로 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철도백년사의 복구 기록에 따르면 당시 임진강 철교는 서울~판문점간 자동차용 도로 교량으로 복구되어 휴전회담 관계자의 통행에 이용되었고 포로교환 당시에도 포로들이 트럭으로 이 곳을 통과 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자유의 다리는 현재 연장 83m 목교만이 아니라 철교를 포함하여 전체 784.84m가 자유의 다리인 셈이다.

현재 국도1호선으로 연결되는 자유의 다리 목재구간을 상행선 방향으로 틀어서 연결한 것에 대한 기록은 찾을 수 없지만, 현재의 도로망 구조나 당시 상황으로 가설을 설정해 볼 수 있다.

지금의 통일로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마정리 마을 안쪽에 서울로 연결되는 국도1번 도로가 있었다.

임진강 철교를 복구하고 마정리 국도1번 도로와 연결하기 위해서 지금의 자유의 다리를 동쪽에 있는 상행선 철로쪽으로 가설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야만 문산까지 철로를 복구하는 공사 없이 국도1호선과 바로 연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자유의 다리를 지금의 목교만을 지칭하게 된 이유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일부 의견처럼 포로교환 당시 임진강을 횡단하는 가설교를 이용하여 포로가 한국군에게 인계되었거나 복구된 철교가 기존의 마을명을 따라 독개다리라고 불리워져 지금의 자유의 다리만을 지칭하지 않았나 추측



북쪽에서 본 임진철교 2005.8.7.

해 볼 수 있다.

여러가지 상황을 분석하면 임진강을 횡단하는 가설교는 1951년 하반기부터 설치 또는 사용중에 있었으며 가설교가 홍수 등의 위험으로 유실될 것을 우려하여 임진강 철교를 복구한 것으로 보이고 일정 기간까지는 복구된 철교와 가설교를 병행하여 사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임진강 철교는 1904년 3월 12일에 용산~개성간 노반공사가 착수되어 1905년 4월 28일에 준공되었으며 청천강 철교가 완성되면서 1906년 3월 25일부터 용산~신의주간 전 구간에 열차가 운행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확대됨에 따라 일제는 1938년부터 대륙 침략을 위한 군수 물자와 병력을 수송하기 위해 경의선 복선 공사를 시작하였다. 이 때 임진강을 횡단하는 철교가 상하행선 2개로 되었다.

임진강 철교를 통과하여 운행되던 경의선은 남북이 38도선으로 나누어진 1945년 9월 11일에 중단되었고 한국의 신탁통치안을 협의하던 미.소공동위원회의 연락장교단 수송을 위해 1947년 8월 9일에 서울-평양간 임시열차가 운행된 적이 있다.

한국전쟁 당시 자유의 다리를 지키기 위한 문산지역 전투에 대한 기록은 비교적 자세하게 남아 있다.

전투사에 따르면 당시 이곳을 방어하던 육군 1사단 11연대(연대장 대령 최경록)은 25일 11:00~15:00 사이에 열차를 이용 문산으로 이동하여 마정리 1번 도로 좌우측으로 방어를 시작하였다.

제11연대장은 개성지구에 있던 제12연대 일부 병력이 임진강철교를 통해 철수한 상황을 확인한 후 사단장에게 철교 폭파를 건의하여 사단공병이 폭약을 장전하고 점화하였지만 불발로 실패하고 말았다. 아군의 임진강철교 폭파기도가 실패한 것을 확인한 적 제6사단은 26일 이른 새벽에 임진강철교를 통해 전차 5대를 앞세운 보·전·포 협동부대로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와 맞선 제 11연대는 임진강철교로부터 남쪽으로 중심 깊게 편성한 방어진대에서 완강히 저항하였으나 전차와 대결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과 방법이 없어 문산 남쪽 구릉지대로 철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로써 적은 평양-개성-서울로 연결된 가장 양호한 국도1호인 경의도로를 주병참선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임진강 철교에 기차가 다시 운행된 것은 한국전쟁시 평양을 탈환하고 1950년 11월 12일 서울-대동강 구간에 열차가 운행되었다. 그 해 10월 중국군의 개입으로 연합군이 다급하게 후퇴를 하면서 1950년 12월 31일 22:00경에 미군이 장단역에 정차된 기관차를 총격으로 거부하고 후퇴하였으며 임진강 철교도 이 당시에 폭파된 것으로 추정된다.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이전에는 서울의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1972년 5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 임진강철교를 이용하여 평양을 방문하여 김영주 조직지도부장과 회담을 진행하였으며, 북한의 김영주 부장을 대신한 박성철 제2부수상도 1972년 5월 29일부터 6월1일까지 이 철교를 이용하여 통일로로 서울을 방문하여 이후락 부장과 회담을 진행하였다.

1998년에 통일대교가 개통되기 전까지는 이 자유의 다리 1개 차선으로 왕복 차량이 교대로 통행하였으며 민통선 지역으로 들어 가려는 차량은 임진각 건물 앞에 줄을 이어 대기하기도 하였다.

1990년대에 남북이 화해와 협력 분위기로 조성되면서 1992년에는 남북 기본합의서에 남북철도 연결이 명시되었다.

2000년 7월 1차 남북장관급 회담때에는 철도 연결에 합의하고 그해 9월에 임진각에서 경의선 복원 기공식이 개최되었다. 그 후 2002년 9월 경의선 연결 공사가 착수되고 2003년 6월 군사분계선 철로가 연결되었으나 핵문제 등 북



1970년대 임진각 광장 망배단설치공사

미 관계 악화로 무산되었다.

남북은 여러가지 우여곡절 끝에 2007년 5월 군사보장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운행이 중단된지 56년만에 열차를 시험운행 하였고 7개월 후 2007. 12. 11일에는 개성공단의 자재와 생산 물량의 수송을 위해 문산-봉동간 화물열차 운행을 시작하므로서 경의선이 운행이 재개되었다.

자유의 다리는 군사적이나 정치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한민족의 역사와 함께한 다리이다. 그 다리를 통하여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상징성은 충분하다. 민족의 수 많은 사연이 담겨있는 그 다리를 ‘자유의 다리’ 라고 부르는 것을 주저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앞으로 자유의 다리와 관련한 진실이 밝혀 질 수 있도록 전문가의 고증과 연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 이외에도 파주와 관련된 많은 역사가 사실대로 정리될 수 있도록 문헌의 보존과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자료 출처 >

\* 한국철도백년사 ( 2005. 한국철도시설공사)

\* 왓스온 :[http://www.whatsonkorea.com/korean/history.ph?uid=489&se=list&page=38&keyfield=&key=&wk\\_code=](http://www.whatsonkorea.com/korean/history.ph?uid=489&se=list&page=38&keyfield=&key=&wk_code=)

\* 전쟁기념관 : <http://ki.warmemo.co.kr:8101/warmemo/jsp/data/view.jsp?type=2&pkey=625CB00002>

\* 국가기록원 : [http://www.archives.go.kr/donBoardView.do?pp=10&depth1\\_code=8&depth2\\_code=3&depth3\\_code=1&depth4\\_code=0&depth5\\_code=0&db=73&no=91392&page=225](http://www.archives.go.kr/donBoardView.do?pp=10&depth1_code=8&depth2_code=3&depth3_code=1&depth4_code=0&depth5_code=0&db=73&no=91392&page=225)

\* 통일뉴스 :가설교를 자유의 다리로 주장 :<http://www.tongilnews.com/news/quickViewArticleView.html?idxno=76054>

#### 추가설명

6.25 당시 파주출신이면서 자유신문의 종군기자였던 윤경현 옹이 전화로 자유의 다리에 대하여 증언한 내용입니다.

"관문점에서 교환된 포로는 임진강철교 북단에서 하차하여 철교를 도보로 건너 왔다. 일제시대부터 임진강 철교는 기차만 통행하고 독개다리라는 목교가 있어 사람이 이용했다고 한다.자유의 다리는 대성동을 자유의 마을로 부른것처럼 포로교환 이전부터 임진강 철교를 자유의 다리라고 불렀다. 이 당시 유엔사에 파견된 최덕균 중령이 윤경현 기자의 명칭 제안을 받아 들였다고 한다."

< 2009.5.11 >



## 월룡 지명유래에 대한 소고

이 내용은 2014년 본인이 월룡면장으로 근무할 당시  
명확한 지명 유래를 파악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월룡의 지명유래는 통상적으로 달이라는 월(月)과 바구니라는 룡(籠)의 의미로 '달바구니 지역'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월룡산에 휘영청 밝은 보름달이 걸려 있는 아름다운 정취를 상징하고 있다며 어떤 주민은 달맞이 행사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달'은 산(山)이라는 옛말이고 월룡 지역에 다락골이라는 마을이 있어 '높은 산이 있는 지역'이라고 말하고 있어 지명유래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문헌을 중심으로 좀더 연구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전문적인 문헌연구에 앞서 월룡산이 바구니처럼 생겼다는 것과 월룡산에 달이 담겨져 있다는 지명유래는 현재 지명을 지나치게 직역하여 해석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통 지명유래는 옛말의 변화 과정과 음운, 다른 지명과의 연관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월룡의 지리적 위치를 살펴 보는 것도 지명유래를 해석하는



월룡산 정상 암반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선 월룡산은 해발 229m로 남파주 지역에서는 가장 높은 산입니다. 이 곳에서는 임진강 건너편 산줄기가 한 눈에 들어오고, 멀리로는 장단반도, 가깝게는 오금리 별판과 통일로 별판이 잘보입니다. 지난 2004

년에는 월룡산이 한성백제 시절의 퇴피식(산 정상 중심) 산성으로 조사되어 2004년에 경기도 문화재 제1966호 지정되었습니다.

특히, 맥금동 방향의 서쪽 절벽은 20m 높이의 암벽이 100m 길이의 암반으로 형성되어 천연요새로 활용되었고 일제 시대에 일부 석산으로 개발되었지만 전반적인 절벽형태는 잘 보존되어있습니다. 월룡 방향의 동쪽 절벽은 서쪽 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멀리서 보아도 바위로 이루어진 산으로 쉽게 알 수 있는 지형을 갖추고 있습니다.

월룡산의 지형을 종합하면 월룡산을 중심으로 위치한 금촌, 교하, 탄현, 문산, 파주 부근에서는 가장 높은산으로 이 지역을 통과할 때에는 월룡산 줄기의 고갯길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또 주변 지역에서 바라 볼때 월룡산 정상이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월룡산의 지형적 특성을 보면서 ‘월룡(月籠)이라는 지명의 유래를 살펴 보는 것이 지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우선 월(月)자라는 명칭을 갖게 된 것을 알아 보기 위해서 다른 지역의 지명유래를 소개합니다.



월룡산 동쪽

과천시 문원동(文原洞)에 있는 ‘다락터

지금까지는 지명에 좀 관심있는 학자라도 글자풀이 중심의 지명 연구를 많이

해 왔다. 그러나 지명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명을 단순히 현재에 나타난 글자에 맞출 것이 아니라 옛말·우리말의 변화 과정·음운·방언·역사성·다른 지명과의 유관 관계 등을 살펴 그 지명이 형성되기까지의 정황을 복합적으로 분석하여, 그 지명이 가진 뜻이나 정착 과정을 철저히 연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과천시 문원동(文原洞)에 있는 ‘다락터’의 예를 들어 보자. 단순히 현재 지명 글자에 집착하는 사람은 ‘다락터’를 글자 그대로 ‘다락+터’ 즉, ‘다락이 있는(있었던) 터’의 뜻으로 새긴다. 그리고는 이것의 한자 지명인 ‘누기(樓基)’에 맞추면서 그 확신을 더욱 굳힌다. 지명 풀이의 함정은 바로 이런 데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국 산지에 공통적으로 많이 분포한 이 ‘다락터’ 지명이 모두 ‘다락이 있는’ 곳으로만 알다가는 큰 오류를 범한다.

다락터는 달리 다라터 다래터 달터 등으로도 불리기도 했는데, 같은 뜻의 비슷한 땅이름으로 다라실 다래실 다래울 등도 있었다. 전국 곳곳의 누기(樓基) 외에 다라(多羅) 다래(多來) 월기(月基) 등의 한자식 지명은 이들을 한자로 옮긴 것이다.

‘다락터’와 ‘달터’는 같은 지명임에도 한자로는 전혀 다른 뜻의 글자로 표기되고 있지 않은가. ‘다락터’는 ‘달’과 ‘터’라는 두 명사 사이에 ‘뉴’라는 소유격조사가 들어가 이루어진 말이다.

달뉴터 > 다꿏터(다라터) > 다락터

‘달’은 ‘산(山)’의 옛말이다. 따라서 ‘달뉴터(다라터)’는 ‘산(山)의 마을’ 즉, 산촌(山村)의 뜻이 된다.

따라서 땅이름 연구에 있어서 지금의 글자로 나타나 있는 그 지명만을 보고 그 글자대로 뜻풀이를 해 내려는 잘못은 저지르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과천문화원 지명유래 발췌 [http://gccc.or.kr/source/data/gc/data\\_list\\_view2.html?Dsdv=1&Dsid=136](http://gccc.or.kr/source/data/gc/data_list_view2.html?Dsdv=1&Dsid=136)>

김포 양촌면 누산 2리 누촌(樓村)

<조선지지자료>에 누리(樓里)라 기재했고 고유명칭을 ‘다락말’이라 병기(併記)했다.

다락말이 예전부터 부르던 지명으로 너른 들 한가운데 우뚝 솟은 언덕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락은 ‘달(達)+악(접미사)’의 구조로 분석되

며 집안의 다락이 높은 곳에 있는 것처럼 ‘달’ 은 ‘높다’ 는 뜻으로 높게 걸려 있는 마을의 뜻이다. <김포 누촌 지명유래 발췌>

홍천 남면 월천리(月川里)

남면(南面) 북동쪽에 위치한 월천리는 본래 홍천군 금물산면(今勿山面, 남면) 지역으로 높은 곳이라하여 다락골, 또는 월천(月川), 월천동, 월천곡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안말(내곡(內谷)), 가작골(가작곡(佳作谷)), 헌텃골(구대곡(舊垔谷)), 양지말(양지림(陽地林)), 옥골을 병합하여 월천리라 함. <홍천 남면 월천리 지명유래>

위에 소개한 내용처럼 ‘달’ 은 ‘다락’ 이라는 우리 말에서 월(月)자로 한자로 표기하면서 뜻이 달라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어사전에도 다락은 ‘ 주로 부엌 위에 이 층처럼 만들어서 물건을 넣어 두는 곳으로 출입구는 방안 쪽에 있는 것이 통상적이다.’ 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국어사전적으로 보면 ‘월룡’ 의 월(月)자가 ‘다락’ 과 같이 높은 산이라는 의미로 쓰인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고 지형 특성과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월룡에 룡(籠)을 살펴 보겠습니다. 월룡산 주변에 있는 용주서원(龍洲書院)과 용상사(龍床寺)는 용(龍)자를 이름에 사용하고 있지만 월룡산에는 달리 ‘ 룡(籠)’ 자를 사용했습니다.

월룡의 룡자는 대나무 그릇을 총칭하는 뜻과 물에 ‘젓다’ 라는 뜻을 갖고 있을뿐만 아니라 옷과 일상용품을 넣어 두는 농(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임원경제지 林園經濟志》에 따르면 “농은 본래 죽기(竹器)” 라는 기록을 보면 초기의 농은 대나무와 싸리·버들가지 등을 엮어 만든 큰 상자 형태에서 유래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사례로는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연화리에 농바우(籠巖)라는 마을이 있는데 이는 : 농(籠)처럼 생긴 큰바위가 있어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월룡산 정상에도 사각형태의 바위산으로 이루어져 있어 아마 룡자가 붙여지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월룡산을 높은산이라는 월(月)자에 바위가 있는 산이라서 악(岳)자를 이용해 월악산(月岳山)이라고 할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월룡산은 바위가 정상부분에만 평평하게 있고 계곡이 많지 않아 악(岳)자를 붙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지명유래를 비추어 볼 때, 월룡은 " 장룡같이 큰 바위가 있는 높은 산"이라는 뜻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월룡의 지명이 기존의 '달 바구니' 로 유래되었거나 '바위가 있는 높은 산'으로 유래 되었어도 두가지 다 좋은 의미로서 쓰이고 있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한글의 변화 과정과 지명을 한자로 전환하는 과정을 염두에 두지 않고 지명유래를 확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결정이 아닌가 해서 여러가지 자료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지명유래는 그 지역의 스토리입니다. 그 스토리에 의해서 지역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자부심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 차원 높이 생각하면 그 스토리를 통하여 지역 브랜드를 새로 만들어 지역 발전의 모티브를 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월룡이 한 차원 높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월룡 지명유래에 대하여 좀더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014.1.8>

## 파주는 부대찌개 원조가 아니다?

부대찌개하면 의정부 부대찌개가 원조라고 생각한다. 게다가 의정부시에서는 2006년부터 매년 9~10월에 부대찌개 축제를 열고 시가지 중앙로터리 부근에는 부대찌개 명물거리를 만들면서 부대찌개 원조로 더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음식이라는 것이 재료와 기법이 다양하고 하루아침에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라서 원조를 가리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부대찌개의 유래가 50년대말 한국전쟁이 끝나고 미군이 주둔하면서 소시지와 햄이 지역으로 흘러나와 만들어진 음식이라서 의정부뿐만 아니라, 동두천, 송탄, 용산, 파주 등 여러지역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 졌을 것이다.

이런 유래로 보면 파주의 부대고기도 원조라고 내세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대찌개 전문식당 수로 보면 의정부시가 150개소가 넘고 파주는 20개소 미만으로 숫자로서 열세이다.

부대찌개는 사실 퓨전음식이다. 한국전쟁후 물자가 부족한 시절에 미군이 먹고 남겼던 소시지나 햄, 닭고기 등의 육류를 김치와 고추장을 넣어서 찌개로 먹었던 것이다. 전통적으로 먹던 김치찌개에 육류가공식품을 넣고 느끼하지 않게 먹었던 당시 서민들의 지혜인것이다.

60년대 당시에 미군부대에서 반출되는 육류가공품들은 식당에서 사용하고 남은 식재료로서 사실상 반출이 금지되어 있었다. 그러나 미군부대에 근무하는 한국 종업원이 남은 육류가공품을 비닐에 싸서 잔밥통에 넣거나 출입하는 미군에게 부탁하여 반출되어 이용되었다.

80년대에도 전통 부대찌개 식당이 문산에 여러곳에 있었다. 그나마 오랜전통을 지키고 있던 곳이 삼거리 식당이다. 이곳은 90년대에도 철수하지않은 미군부대에서 나온 육가공품을 직접 사용해 부대찌개를 만들었다. 그래서 점심때에는 손님이 붐볐으며 서울서도 손님이 일부러 찾아 오기도 하였다.

지금도 문산에 삼거리식당이 자리잡고 있고 인접하여 충청식당과 정미식당이 부대찌개 전문점으로 인정받고 있다.또 금촌에도 미스터쿡, 존슨집,의정부부대찌개, 큰손집 등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부대찌개도 전통의 방법보다는 식당마다 특색있게 맛을 내고 있어 어느 곳이 원조의 맛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데 사실이다.

파주가 부대찌개 원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평야지대로서 미곡 생산량이 많고 임진강과 지류 하천들이 많아 다른 먹을거리가 풍부해서가 아닌가 생각해본다.<2011.2.5,>

## 돼지부속의 원조 파주

요즈음 구제역이 한창이라 소고기, 돼지고기를 먹겠다고 마음 먹기가 쉬운일은 아니다. 그러나 80년대에는 회식이나 특별한 날에만 먹을 수 있는 무공해 음식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중 돼지부속은 한 시대의 뒷자락을 장식했던 음식이기도 하다. 그 당시의 기억을 찾아 정리해 보는것도 작은 역사의 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한다.

80년대 파주사람들이 즐겨 찾던 돼지부속집이라는 곳이 있었다. 그때 당시에 돼지 부속집은 조리읍 봉일천리, 금촌 시가지, 교하읍 읍사무소 앞 등에 지역별로 두세개 업소가 있었다. 그중 원조라 할 수 있는 곳은 조리읍 봉일천 시장에 장군집이라는 곳이다.

돼지부속은 돼지를 도축하고 일반상품으로 수요가 적은 꺾데기, 막장, 염통, 갈매기살 등을 말한다. 그러나 실상은 돼지의 고환과 생식기를 감춰 부르기 위한 이름이다.

이 당시에는 돼지갈비와 삼겹살을 구어 먹는게 일반적인 시절이다. 금촌역 앞도로 주변에는 갈비집이 즐비하였다. 그러나 돼지 부속집은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가지 부위를 골고루 먹을 수 있어 인기가 있었다. 보통은 돼지부속 모듬으로 나오기도하고 특정 부위만 주문할 수도 있지만 생식기 부위의 독특한 맛과 호기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듬을 주문한다.

돼지부속 요리법도 업소마다 다르기도 하였지만 기본적으로는 번개탄에 석쇠





를 얹어 구어 먹는 방법이 일반적이었고, 교하읍사무소 근처에 있던 부속집은 은박지 호일 위에 콩나물과 고추장 무침의 고기를 볶아서 먹는 방법도 있었다.

이런 돼지부속집이 파주에서 먼저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은 6~70년대의 파주의 인구가 16만 정도로서 다른 지역보다 경제가 활성화 된 지역이다. 이 당시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어 다른 지역에서 인구 유입도 많았을 뿐 아니라 다양한 계층이 거주하고 있었다.

인구가 많은 탓에 육류 공급 수요도 많았다. 그 당시에는 냉장시설도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마다 도축장이 운영되고 있었다. 도축장은 물이 풍부하고 오물처리가 잘되는 하천변에 위치해 있었다. 아마 봉일천 장군집도 봉일천 시장과 도축장이 인근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발생되었을 것이라고 본다.

일반 살코기는 정육점으로 공급되지만 간과 막창등과 내장은 헐 값으로 순대국집과 부속집으로 판매되었다. 이렇게 구입된 돼지부속은 음식점에서 손질되어 상대적으로 수입이 적은 계층에게 값싸게 제공되기 시작되었을 것이라고 보인다.

2000년 초에 서울 사람 몇이 와서 돼지부속을 먹으면서 서울지역에서 먹어보지 못한 새로운 경험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당시까지도 지금의 돼지부속집 체인점이 발생하기 이전 이라서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꾸준히 서민에게 사랑받던 돼지부속집이 2000년 후반부터 이름만 돼지부속집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 당시부터는 돼지의 품질을 높이기 생식기를 거세하면서 돼지부속의 핵심적인 부분은 공급이 끊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은 생식기를 제외한 내장과 일부 살코기를 양념하여 판매하는 체인점 형식으로 돼지부속집이 많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돼지부속이라는 이름에 감추어진 이야기는 빛을 바래고 일반 고기집에서 새로운 부위를 싸게 먹어보는 음식점으로 바뀌고 있는것 같다. 시대의 흐름이라는 이름으로 ... <2011. 1.9>

## 공릉천을 지키는 공천수



금촌 교하향교 앞으로 흐르는 공릉천에 미루나무가 있다. 이 나무의 수령이 족히 50년 이상이 되어 보인다.

금촌 시가지서 나오는 지류와 합쳐지는 제방 근처이고 하천 바닥보다 높은 곳에 있어 홍수에도 휩쓸리지 않고 지금까지 생존해 있는것 같다.

아마 공릉천 제방 안쪽 하천에서 자라고 있는 유일한 나무 일 것이다. 이 나무가 돋보이기 시작한 것은 인근 지역이 택지로 개발되고 하천에 자전거 도로가 생기면서 이다. 하천에 제방을 쌓으면서 이 나무 주위도 옹벽을 쌓고 그늘진 자리에는 평상도 갖다 놓았다.

이곳을 지나 다니면 나무의 출생이 궁금해진다. 누가 일부러 심은 것인지? 아니면 홍수로 떠 밀려와 이곳에 정착되었는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된다. 이 나무가 6.25 전쟁을 겪었는지 아니면 그 시대 이후 조림정책이 한창일때 심어 졌는지는 알 수 없다.

이곳에서 2백여 미터 거리에 있는 향교 옆에는 이 나무와 수령이 비슷해 보이는 플라타너스가 있다. 보통 플라타너스는 일제 시대 도로 및 건물 은폐용으로 많이 사용되기도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일제 식민지 시대일 수도 있다.

여러가지 정황으로 봐서 이 나무는 수령이 50년 이상 넘는 것으로 보아 한국의 격동기를 살아 온 것은 사실이다. 이 지역은 가나무골이라고 불리던 마을이었고 조선시대에는 배가 닿던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 향교와 창고 등이 있었던 것이다.

이 나무의 생명력과 존재감을 넣어 주기 위해 이름을 지어 주려고 한다. 공릉천을 지키고 있는 나무라고 해서 '공천수'라 불러 줄 것이다..

이 공천수는 옛날의 어렵고 힘든 시대를 보아 왔다. 그러나 이제는 건강을 위하여 산책하거나 하이킹, 조깅하는 사람들을 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시대의 흐름이다. 공천수도 세상의 여러가지 어려움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지금 공천수 옆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다양하다. 60~70대 노인부터 부모와 함께 유모차에서 재롱을 부리는 어린아이들도 있다. 또 건강이 안 좋아서 부부와 함께 아침과 저녁에 산책하는 사람도 있다. 어느 비오는 날에도 이 도로 앞을 힘차게 뛰어 가는 사람도 있다.

공천수는 그런 사람들을 늘 바라보고만 있다. 가지에 나뭇잎이 싱그럽거나 아니면 가을색으로 채색되어도 늘 바라보고 있다. 한 겨울에 눈보라가 몹시 몰아쳐도 공천수는 늘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공천수는 공릉천의 수호자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2011.7.7, >

## 자유로의 통일대전을 찾아서

자유로에서 문산방향으로 가다가 오두산전망대 근처 파주NFC(국가축구대표팀 트레이닝센터) 위쪽으로 한식 목조 기와 건물이 길게 늘어진 곳이 보인다. 이 곳은 고려의 태조왕건과 고려역사 475년의 충신과 공신들의 위패를 모시게 될 고려 통일대전이다.



자유로를 통행하면서 가끔 한식 건물에 대하여 궁금해 하였다가 최근에 공사가 마무리 되어 간다는 소식을 듣고서 장마가 끝나고 해가 잠깐 비추는 지난 8월 6일에 통일대전을 찾았다.

트레이닝 센터를 지나 좌측으로 2차선 길을 약간 올라가 차를 주차하고 통일대전을 바라보니 먼저 없었던 하얀 흰스가 설치되어 있고 정문은 굳게 잠겨져 있었다. 무작정 달려온 통일대전의 답사를 포기하고 돌아 가려다가 고려선양회 사무국장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이달 8월 30일에 준공식을 갖기 위해서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후문으로 돌아가기 위해 다시 자동차를 몰았다.

파주NFC 뒷길을 따라 북쪽 방향으로 가다가 첫 번째 사거리에서 위즈호텔 방향으로 우회전하고 콘크리트 포장된 경사길을 올라가 후문으로 들어갔다. 정전은 새롭게 단정되어 화려하였고 경내에서 방송시설 공사를 하고 있는지 가요

가 경내에 올려 펴지고 있었다.

정전은 단층이면서 3층 정도의 높이로 정면9칸, 측면5칸(31.20M × 16.8M)으로 525㎡ 면적규모와 겹처마에 팔작지붕으로 내부는 제례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외관은 상당히 웅장한 느낌을 주었다.



정전 안으로 들어서자 정면에는 고려 34대의 왕들을 모시는 위패가 2대왕 해종부터 마지막 공민왕이 남쪽에서 북쪽방향으로 배치되었으며 정중앙에는 태조인 왕건의 위패와 영정이 설치될 빈 자리가 만들어져 있었다. 그리고 정전 좌우에는 (재) 고려선양회에서 회원 109문중에서 신청한 충신과 공신 195위의 위패를 배향해 놓았다. 당초에는 내삼문 좌우에 있는 충신각과 공신각에 위패를 배향키로 하였으나 그 곳에는 고려와 관련된 유물 등의 전시관으로 활용할 계획이라 배향 장소를 변경하였다고 한다.

고려는 918년 6월 태봉국의 시중이었던 왕건이 황제인 궁예를 축출하고 홍유, 신승겸, 배현경, 복지겸의 추대를 받아 고려의 건국시조가 되었으며 후삼국 체제로 나누어져 있던 국가를 하나의 국가로 통일하여 호족세력의 통합정책과 4대 광종의 활약으로 5백년의 고려 역사를 만들어 냈다.

이러한 역사를 갖는 고려는 그 동안 남북대치 상황에서 거론되지 않다가 최근에 고려시대 때 성(姓)을 받은 124개 문중(개성 왕씨, 개국공신(신승겸)을 낸

평산신씨·포은(정몽주)의 연일정씨·강감찬 장군과 강민첨 장군, 공목공(휘 시) 제위를 배출한 진주강씨)이 모여 고려역사 선양회라는 사단법인을 구성하여 고려통일대전 건립 사업을 착수하게 되었다.

고려통일대전은 고려의 민족 통일 정신과 역사를 재현하기 위하여 1995년부터 사단법인 고려선양회(회장 차화준)에서 정부지원 및 자부담 등 전체 167억원의 사업비로 정전과 충신각, 공신각 등의 건물을 고려시대 양식에 맞추어 건축하였다.



통일대전 위패

고려통일대전 부지는 1991년부터 조성되던 통일동산 부지중 탄현면 성동리 684번지(파주시 소유) 중앙공원 부지에 41,200㎡를 협조받아 1995년 12월부터 토목공사를 시작하였으며, 2002년 충신각, 공신각 등을 완공하였고, 2004년도 경기도에서 30억원을 지원받아 정전과 강당을 2006년 12월에 완공하였다.

정전은 준공되었지만 부대시설인 신도, 담장, 내부단청 등의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부족한 예산 16억원 가량을 경기도에 요청한 상태이고, 그 이외에 고려역사관 건립에 140억원의 소요사업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고려통일대전 건립을 위하여 많은 예산이 소요되나 재정적 기반이 취약한 고려선양회에서는 중앙정부나 지자체에 지원을 통하여 건립하다보니 10여년이 지나서야 고려통일대전의 핵심인 정전을 준공하게 되었다. 그러나 고려역사를 후손에게 남겨야 한다는 사명감은 장기간의 사업임에도 노익장의 노련함과 추진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고려선양회 차화준(경제기획원차관보, 14대국회위원, 연안차씨종친회 회장)총재는 “진정한 의미의 통일은 고려가 해냈습니다. 요즘의 햇볕정책도 따지고 보면 고려시대 태조 왕건이 난립한 호족세력의 통합을 위해 실시한 포용정책의 정신에서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앞으로 언젠가 이를 남북통일과 고려의 삼한통합과는 일맥상통한다”고 주장 하고 있다.

또한 고려역사선양회는 “박정희 대통령 때 이충무공과 세종대왕 헌창을 국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그동안 역대정권은 신라·백제·조선조 문화권 복원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실시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역사의 허리인 고려조 475년의 역사를 상징하는 표상사업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통일을 지향한다면 자주통일을 이룬 고려를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역설했다.

고려선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려역사관은 건평 6,048㎡, 지상 2층 규모로 통일과 화합, 자주를 바탕으로 명실상부한 한반도 단일국가를 이룩한 고려의 건국과정과 이념, 대외교류, 시련극복 등을 다루는 역사관과 고려시대의 사상과 학술, 풍속 등을 전시하는 생활문화관으로 나누어 각종 유물·유품·고문헌을 비치할 것이며 그것을 형상화한 모형도·초상화·모조품·사진·도표 등이 전시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이밖에 고려사연구소, 고려문화재연구소 등 부속 기구를 설치하여 고려사 연구의 산실로도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정전에서 남쪽 아래에는 전사청이 있는데 제사때 음식과 제기를 준비하는 곳으로 보통은 수복방이라고도 한다. 수복방으로 내려가면 좌우로 길게 늘어선 공신각과 충신각이 있다. 공신각과 충신각이 각각 15칸씩으로 중간에 내삼문까지 포함하면 약 70이고 내부 폭은 2칸으로 3.6m가 된다.

내삼문은 통일대전의 입구로서 트레이닝센터 방향의 정문에서 40도 가량의 경사지에 화강석 계단 약 30m가 연결되어 있어 통일대전의 웅장한 모습을 한층 더 해 주고 있다.

이 곳에 도착한지 1시간도 안된 짧은 시간에 통일대전을 모두 볼 수 있었지만 화강석 계단과 정전의 높은 중층규모를 보면서 고려의 오랜역사와 흥망성쇠를 느낄 수 있었다. 고려의 역사 중심지는 북한에 위치한 개성이나 평양일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자신이 한국의 정통성을 가졌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 또 현재를 위해서 백성의 인기에 영합하거나 기만하는 것보다는 미래를 위한 역사의 복원은 우리 민족이 중국이나 일본보다 더 도약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장기간의 공사로 곳곳에 손을 댈 곳이 많은 사업이지만, 앞으로 이 곳이 남한에서의 찬란한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명승지로 개발된다면 통일동산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또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장마에 가렸던 햇살이 따가워 지면서 서쪽으로 바라 보이는 통일전망대가 전통한옥의 기와에 걸려 풍경이 아름다워 보일때 통일대전 아래쪽에 국가대표트

레이닝 센터를 바라보면서 남북한 선수가 한 몸이되어 연습하는 광경을 상상해 본다.



햇살이 통일동산 주차장 주변을 조명하면서 우뚝 솟은 위즈호텔과 많은 모텔들을 눈에 띄게한다. 고려의 통일역사를 위해 세워지는 이 곳 주위에 앞으로 찾아올 방문객을 위해 미리 준비하는 후손들의 깊은 뜻에 감명 받을 수 밖에 없다.

역사는 되풀이 된다고 한다. 고려통일대전 건립이 한반도를 빠르게 통일 시키는 발원지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져 본다. < 2007.8.7 >



## 파주 경의선 이야기 1



경의선은 파주를 관통하는 철도로서 별 다른 교통수단이 없었던 그 시절에 신설된 역 중심으로 도로와 상가가 생기면서 파주 지역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게 하였다.

최근 일제시대에 건립된 금촌역사가 전철복선화 공사를 하면서 역사를 고가철도로 이전하였다. 평상시 경의선의 파주 구간 역사자료를 정리하겠다고 미루다가 다른 역도 옛날 모습이 어느날 갑자기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에 카메라를 들고 나섰다.

경의선은 1904년 러일전쟁이 발발하자 일본이 그 해 2월 21일 서울-의주(499.3km) 간 군용철도 목적으로 군용철도감부에서 부설하였으며 나중에 한국주재 일본군사령관 예하에 전속시켰다.

1906년 4월 3일 용산-신의주간 철도가 완전 개통되었고 같은 해 9월 1일 관리권이 군용철도에서 통감부철도관리국으로 이관되었다. 1908년 4월 1일부터는 부산-신의주 간 직통 급행열차인 '용희호'가 운행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후 중·일 전쟁을 계기로 복선화가 진행되었다.

그 당시 철도부설을 위해 일본은 농민기에 농민을 강제로 끌어가고 식량과 가족을 징발하여 농촌은 공동화되었으며 1906년 5월15일자 대한매일신보는 “철도 지나는 지역은 온전한 땅이 없고 기력이 남아 있는 사람도 없으며 열집에 아홉집은 텅 비었고, 천리 길에 닭과 돼지가 멸종하였다” 고까지 개탄했다. 일본은 이런 침탈 이외도 당시 철도역 부지를 넓게 책정하여 그 일대의 조선 농민을 내 쫓은 후 일본인들에게 싼 값에 넘기고 철도역 주변에 새로운 도로와 관공서를 세워 교통중심지로 만들어 일본인들을 돈방석에 앉게 하였다.



파주의 경의선은 부설 당시 일산 다음 역으로 금촌역과 문산역, 현재 휴전선 근처의 장단역이 있었으며 1956년5월11일 교하읍 야당리에 금촌역 관리의 운정역과 1967년 9월 1일에 월롱면 위전리에 문산역 관리의 파주역이 역무원 무배치 간이역으로 개설되었다.



파주역 개설 당시 위치 선정에 따른 주내면(현재 파주읍)과 월롱면 주민과의 대립이 치열하였다. 그런 중에 1965년 월롱면 위전리 주민 윤태영씨는 철로에 발을 묶고 런닝셔츠를 흔들어 기관차를 세우려다 실패하여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다.

이렇게 양쪽 주민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자 월롱면 위전리와 파주읍 봉암리 주민 모두가 이용하기 불편한 중간 지점에 역사를 개설하게 되었다.그 후 1998년에 파주시가 예산을 부담하여 기존의 파주역을 폐쇄하고 월롱면 위전리 면사무

소 앞에 월롱역과 파주읍 봉암리에 파주역을 각각 신설하게되었다.

1936년도 서울(당시 경성)행 열차는 장단에서 20:29분, 문산 20:49분, 금

촌:21:00에 각각 출발하여 서울역에 21:50분에 도착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1977년에는 문산발 서울행은 새벽5시 열차를 첫 차로 05:50분, 06:40분, 07:10분, 08:20분에 서울로 출근하는 직장인과 학생을 위한 통근열차로 배차하였다. 그 시간 후에는 1시간 간격으로 배차하였으며 21:20분이 마지막 기차였다.

1960년대에 경의선 기차는 중요한 교통수단으로서 농촌에서는 직접 경작한 농산물을 개인이 운반할 수 있는 만큼 포장하여 아침 첫차를 타고 서울역과 용산 등에서 노점 판매하거나, 미군부대에서 불법으로 빼낸 미군물자 수송을 위해 많이 이용되었다. 특히, 불법으로 유출한 미군물자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타인의 의자 아래나 선반에 감추는 등의 다양한 행태가 유행한 시절도 있었다.

1960년대말 당시 학생들의 기차요금은 일반 버스보다 저렴하여 당시 자장면이 한 그릇에 30원일때 학생 요금은 한 달에 200원 정도였으며 서울을 통학하는 학생들은 새벽에 아침을 먹고 버스나 도보로 역까지 와서 기차를 이용하였다.

경의선은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지난 1951년 6월 12일 운행이 중단되고 문산역이 종착역이 되었으며 철도중단점이라는 간판이 민족 분단의 상징이 되었다. 그 후 철도 중단점을 임진각 관광지로 옮겨 관광객들이 기념촬영하는 필수 코스가 되었다. 그러나 남북의 화해와 협력이 진행되면서 1992년에는 남북 기본합의서에 남북철도 연결을 명시하였다.

2000년 7월 1차 남북장관급 회담때에는 철도 연결에 합의하고 그해 9월에 임진각에서 경의선 복원 기공식이 열렸다. 그 후 2002년 9월 경의선 연결공사가 착수되고 2003년 6월 군사분계선 철로가 연결되었으나 핵문제 등 북미 관계 악화로 무산되었다.

남북은 여러가지 우여곡절 끝에 2007년 5월 군사보장 합의를 체결하면서 운행이 중단된지 56년만에 열차를 시험운행 하였고 7개월 후 2007. 12. 11일에는 개성공단의 자재와 생산 물량의 수송을 위해 문산-봉동간 화물열차 운행을 시작하므로서 경의선의 유럽 연결을 위한 첫 걸음을 나서게 되었다.

경의선 전철복선화 사업(용산~문산)은 서울의 북서부 위성도시를 연결하기 위해 복선 및 전철화 하는 사업으로 2009년 6월 개통을 목표로 철로 공사를 마치고 현재 역사와 전기 등의 공사를 마무리 하고 있다.

이 사업은 당초 2007년말 성산~문산(39.6km) 구간을 우선 개통해 대곡역에

서 서울지하철 3호선, 성산역에서 6호선으로 환승시킬 계획이었으나 고양시 구간의 지하화 요구로 지연되다가 2005년 지상화구간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로 합의하고 다시 재착공에 들어 갔다.



전철 복선화 사업이 완료되면 급행 열차가 운행되어 서울구간 4개역, 고양파주 구간에 4개역에서 정차하고 문산~용산 까지는 약40분이 소요되며 6~8분 배차 간격으로 운행될 계획이어서 역사 주변이 아파트 단지 등으로 집중 개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양시 지역의 일산역을 지나 파주 지역에서 처음 정차하는 운정역(雲井驛)은 행정구역상 교하읍 야당3리로서 옛날 이 지역에 샘이 잘 나오는 우물 아홉 개가 있어 구우물이라고 불려 왔었는데 구름우물로 잘 못 불려져 운정으로 역 명칭이 되었다고 하며 이 지역은 수령 논과 우물이 많아 안개가 자욱하였다고 전해 온다.

현재 운정 역사는 한국전쟁 직후 건립되어 외관과 형태는 전형적인 옛날 역사의 모습을 갖추고 있으며 증기 기관차 운행 시절 열차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소규모 급수탑이 아직 남아 있다. 이 역사의 관리는 민간인에게 위탁되어 열차권 판매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이 지역 주변에는 상지석리와 와동리가 있고 고양시와 경계 부분에 위치하면서 농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다. 2003년부터 교하신도시가 조성되면서 공사가 한창 진행중에 있으며 내년 3월부터 입주하여 2013년 완공되면 8만세대 22만명 규모의 신도시로 10년전 파주시 규모의 도시가 추가로 생기게 될 것이다.

운정역에서 3.3km 북쪽으로 금릉역(金陵驛)이 있다. 금릉역이 위치한 곳은 금촌동 563-1번지로서 역의 명칭인 금릉동은 이 곳에서 1km 이상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지역은 자연부락명인 새꽃마을(신화동,新花洞)으로 불리고 있다.



금촌역

이 역은 금촌택지지구 조성에 따라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 2004년 10월 임시승강장을 신설하여 운영하다가 2007.10.1일부터 간이역으로 지정되어 한국철도유통 직원이 승차권 발매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금촌역(金村驛)은 금릉역에서 1.5km 북쪽 금촌동 329번지에 위치하며 1906. 4. 6 개소하였다가 지난 2008. 4. 17일에 고가철도로 이전하여 현대식 전철 역사로 바뀌었다. 현재 기존 역사는 철거되고 역광장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금촌이라는 지명은 지금의 역사 개울 건너 북쪽 방향의 마을로서 원래 '새말'이었으나 철도부설 당시 일본인이 '쇠말'로 들어 금촌역으로 이름이 지어졌다. 현재는 파주의 중심 지역으로 파주시청을 비롯한 중요 관공서가 위치하고 있으

며 한국전쟁 이후에는 미군부대 주둔으로 경기가 활성화 되면서 고양시까지 관할하는 파주세무서가 있었다.

월룡역(月籠驛)은 금촌역에서 4.1km 북쪽 월룡면 위전리 355번지에 위치하며 1998.1.17 지금의 신역사로 개소하였다. 철도 역사 유치를 위해 1965. 8.10일 이 곳 주민 윤태영씨가 철로에서 사망한지 33년만에 월룡 역사가 신설된 곳이기도 하다.



월룡역

역사 주차광장 앞에는 작품명 "대한민국"이라는 태극 모양의 조형물이 있다. 이 작품은 오석과 화강석으로 민족의 상징인 태극을 표현하여 한민족의 통일과 번영을 기원하고 있다.

월룡역은 통일로와 인접하고 인근에는 2006년 4월에 준공된 LG필립스(현재 LG디스플레이) 공장이 1,697.5천㎡ (약50만평) 면적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주변에 협력단지가 조성되면서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지역이다.



월룡역기념비

또한 파주시에서는 금촌역과 월룡역 중간에 위치한 영태리 에드워드 미군부대 자리에 이대 캠퍼스를 조성하면서 이대역사

를 신설하기 위해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월릉의 지명은 지대가 높다는 뜻의 '다락'이 '다랑'-'다롱'-'월릉'으로 음이 변화된 것으로 추정하고 월릉역에 위치한 위전리(薦田里)는 마을 앞 문산천 주변에 갈대가 많이 있었는데 이 갈대를 베어 내고 마을을 만들었다하여 마을명칭이 되었다. 근처에 금강산랜드가 위치하여 사우나 및 골프 이용객이 많이 찾아오고 있다.



컨테이너 하역장

<다음호에 계속, 2008. 6. 25 이기상>

## 파주 경의선 이야기 2

파주역(坡州驛)은 월릉역에서 2.3km 북쪽인 파주읍 봉암리 516-3번지에 위치하며 역무원이 없는 간이역으로 이용 승객은 이지역의 봉암리 주민 보다는 2~3km 떨어진 파주읍사무소 소재지 인근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지금은 경의선 전철화 사업으로 추진되는 역사의 공사가 한창이며 이 역의 명칭도 봉암역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파주역사 공사중

파주역이 위치한 봉암1리는 ‘주라이’ 또는 ‘주라위’ ‘줄아위’ 라고도 불리는 마을로서 근처에 있는 줄바위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며 마을 명칭이 '현암동', '줄바위'로 불리기도 하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시 봉현리와 현암리 이름을 따와서 봉암리(烽岩里)가 되었다.

문산역(汶山驛)은 파주역에서 4.5km 북쪽인 문산읍 문산리 17번지 위치하고 1906년부터 이용되던 역사는 2001년에 경의선 전철 복선화 사업에 맞추어 현대식 건물로 새로 지어졌다. 원래 문산역은 구도로와 연결되어 있었지만 새 역사를 통일로 방향으로 조금 옮기면서 현재 역사 앞으로 시가지를 우회하는 4차선 도로가 신설되었다.

문산역 1층에는 다른 역에서 보기 힘든 TMO(Transportation movement office)라는 사무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 이 TMO는 군병력 및 군수물자의 수송을 관리하는 곳으로 주로 휴가 장병이나 출장 군인에게 열차 이용을 안내



하고 있다.

문산은 임진강과 연결되어 수운의 중심지로서 삼국시대에는 술이홀현과 서원군 원평도호부 청사가 선유리 문산동초등학교 자리에 있었으며 사목리 포구를 통하여 장단을 왕래 하였었다.



문산역

그 후 임진강의 강 흐름이 변동되자 지금의 문산읍 하동(문산역 쪽은 문산상동으로 불렀다)에 포구를 설치하여 풍덕, 김포,강화,고랑포,연천,송도와 한양 등의 지역을 황포 돛배로 연결하는 중심지 역할을 하면서 문산이 발전되었고 한국전쟁 이전까지는 파주군청이 소재했었다.



문산역내 TMO

최근에는 월릉의 LCD산업단지와 연계한 첨단산업단지가 당동리에 64만1000㎡, 선유리에 131만 2000㎡ 규모로 조성되고 대규모

아파트가 선유리에 집중적으로 건립되어 획기적인 발전이 기대되는 곳이기도 하다.

문산이라는 명칭은 조선 초기에 홍수가 나면 임진강으로 흙탕물이 내려가다 서해의 조수에 밀려 더러운 흙탕물이 이 곳에 산더미처럼 밀려왔다고 하여 문산(汶山)이라 하였으며 이지역을 문산개나 문산포라고도 불렀다. 이곳의 물맛은 서해 바닷물의 영향으로 짜고 맛이 없어 일제시대에는 물을 사서 먹을 정도였

다고 한다.

문산역사 주차광장 맞은 편 소공원에는 작은 기념조각이 세워져 있다. 기념탑 하단에 '이 지역은 '99년, '96년 2차례에 걸쳐 침수되었던 곳입니다.'라고 음각되어 있으며 금속으로 조각된 상단의 초승달 모양은 수해와 연관 되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문산수해비

문산역 맞은 편 시가지는 철도부설 당시에 형성된 주택가 골목이 큰길에 이어져 있으며 아직 기와집으로 남아 있어 그 옛날의 번성하였던 정취를 느낄 수 있게 한다.



문산시가지

운천역(雲泉驛)은 2004. 10.31 문산역에서 북쪽으로 3.7km인 문산읍 운천리에 임시 승강장으로 신설되었으며 주변에 큰 마을이 없어 이용객은 많지 않다. 운천이라는 명칭은 산골짜기에 구름이 돌아가고 여러 곳에서 많은 샘이 솟아나 붙은 이름이라고도 한다.



운천역

임진강(臨津江)역은 2001. 9.30 운천역에서 2.3km 떨어진 문산읍 마정리에 신설되었고 남한에서 민간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경의선의 마지막 역이기도 하다.

이 역은 파주시가 운영하는 임진각 관광지와 인접하여 서울이나 일산에서 이곳을 방문할 때 많이 이용하는 기차역이기도 하며 이 곳에서 민통선 안에 있는 도라산역을 왕복하는 열차가 운행되고 있다.

임진강역 지붕 위로는 자유로 고가차도가 지나가고 있지만 승강장은 현대적이고 쾌적하게 지어져 마지막 역에 대한 예우를 갖춘 것으로 생각된다. 승강장에



임진강역

서 북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임진강 철교가 있으나 군초소가 있어 민간인의 출입을 막고 있다.

임진강이라는 명칭은 고구려 때 임진강 지역이 진임성현(津臨城縣) 또는 오아홀(烏阿忽)로 표기되어 있고 신라 경덕왕 때 임진현으로 바뀌면서 처음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이곳에 임진성이 있어 그 지명을 따서 임진강이라고 불린 것으로 생각되며, 백제시대 초기에는 임



임진강역기념비

진강이 굽이가 많다고 하여 임진강 상류를 칠증하, 호로하로 삼국사기에 표기



도라산역

하고 있다.

임진강역 역사 옆에는 크기가 2미터나 되는 원형 화강석에 분단의 아픔을 노래한 박봉우 시인의 '휴전선'이라는 작품이 세워져 있다. 이 시와 임진강에서 불어 오는 강바람으로 인하여 이 곳이 휴전선과 인접한 곳이라는 느낌을 갖게 한다. 이 시는 '산과 산이 마주 향하고 믿음에 없는 얼굴과 얼굴이 마주향한 ..... 별들이 차지한 하늘은 끝끝내 하나인데.....요런 자세로 꽃이 되어야 쓰는가' 라면서 분단의 현실을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도라산(都羅山)역은 경의선의 최북단역으로 임진강역에서 3.8km 떨어진 민간인통제구역 장단면 노상리 555번지 위치하고 2002. 4.11일에 신설되었다. 2002. 2.20일에는 미국의 조지 W.부시 대통령이 방문하였고 서울에서 56km, 평양에서 205km 거리에 있으며 이 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임진강역에서 승차권을 구입하고 헌병의 검문을 받아야 기차를 탈 수 있다.

도라산역 관광은 승강장과 역사 주변으로 제한되고 역 방문 기념 스탬프도 비치되어 있으며 제3땅굴과 도라산전망대, 통일촌, 허준선생묘를 운행하는 연계 관광 코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도라산의 명칭은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이 고려의 송도를 찾아 항복하고 장단읍내 뒤 백학산 서맥령의 도라산(156m)에 암자를 짓고 머물면서 조석으로 신라의 도읍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고 하여 불리워 졌다고 한다.

도라산역 1.6km 북쪽에 장단(長端)역이 있었으며 현재는 승강장에 설치된 경

계석과 한국전쟁 당시 탈선된 장단증기 기관차가 50여년 동안 분단의 상징으로 있다가 2007년복원을 위해 문산읍 임진각 관광지에 옮겨 놓으면서 비워진 자리(37°54'15.59"N, 126°41'33.68"E)가 남아 있을 뿐이다.

이 곳에 있던 장단 증기기관차는 1950년 12월 31일 개성을 출발, 서울로 달리던 중 공습으로 탈선하였고 객차 없이 길이 15m, 폭 3.5m, 높이 4m 크기인 화통만 남아 있었다. 도라산 OP를 찾는 방문객에게 분단의 상징으로 설명되었고 2004년 12월에 장단역사와 함께 근대문화재로 등록 되었다.

지금의 장단역사는 그 옛날 마을의 중심지였다. 그러나 지금은 이름모를 잡초가 자라고 고라니가 때 없이 노닐고 있는 한적한 곳 이기도 하다. 7월의 태양이 뜨겁게 내려 쬐이는 이 곳을 보면 그 시절 기적소리가 때때로 들리는 착각이 든



장단역앞 기차화통

다.

철도가 처음 운행되던 시대에는 수송수단이 별로 없어 철도는 상당히 중요한 존재로 부각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 있는 교가처럼 노선별로 철도가라는 것이 있었다. 작곡가와 시기는 미상이지만 당시 시대상을 반영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경의선가 25절 중에 파주 구간은 6절과 7절에서 파평산과 문산포구, 화석정 등이 소개되고 있다. 내용중에 죽립석은 광탄면 용미리의 석불입상을 표현한 것으로 추측하고 문산 포구에는 배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여 진다.

6.一山の 古陵을 멀리拜觀코 坡平山 竹立石 金村서 보아 순식간에 汶山驛 당도 해보니 商船의 돛대가 浦口에 가득

7.臨津江 鐵橋越便 花石亭 거쳐 長端驛 잠간 쉬어 開城이르니 市街의 변화함과 物貨의 繁昌 경성을 떠난후로 第一이로다

경의선과 관련된 자료를 찾다가 우연히 '1937년 5월 파주군 금촌역앞 난장'이라는 제목의 흑백사진을 발견하였다. 배경에 있는 뒷 산이 많이 본 월룡산이고 논과 벌판 지나 가옥들은 새말이나 문산제일고 방향이라고 생각되었다.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금촌 시가지로 나갔으나 빌딩과 고층 아파트가 시야를 가려서 월룡산은 보이지 않았으며 고가철로에 입주한 금촌역에서도 시야가 제한되기



1937년 5월 파주군 금촌역 앞 난장을

는 마찬가지였다.

문산제일고 앞에서 본 월룡산은 배경 능선은 맞는 것 같았지만 가옥들이 있는 마을 뒷산이 사진과 달라 찾는 것을 포기 하였다. 흑백사진 자료가 사실이라면 현재 지형이 많이 바뀌어서 찾지 못한것이거나 아니면 사진 설명이 잘못 되었을 것이다.

경의선은 근대 역사의 산물로서 한일합방과 해방, 6.25전쟁, 미군주둔과 철수, 남북철도 연결 등 민족의 흥망성쇠와 함께 하면서 파주에서는 더욱 친근한 존재이기도 하다. 문산과 금촌이 다른 지역보다 인구나 경제면에서 앞 설 수 있었던 것은 경의선 덕분일 것이다.

지금 파주시는 교하신도시와 LCD관련 첨단산업단지가 문산, 월룡 등에 조성

되면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신흥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또한 경의선이 복선화되어 내년도 6월부터 전철이 6~8분 간격으로 운행되면 서울을 오가는 시민과 관광객의 핵심적인 교통수단으로서 파주를 풍요로운 도시로 만들어 주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임진각 옆 철로

### 경의선의 환영

들판과 강을 오고 간지  
백년의 세월이 지난 경의선이지만

아직 조상의 피와 땀이 마르지 않은 철길로  
시커먼 연기를 내며 달려 가는 기차의 환영을 본다

이제 환영을 떨치고 헤어져야 할 그대이지만  
그대의 어깨에 기대어 신의주까지 달려 보고 싶다.

<2008. 6.25 , 이기상>

## 통일로 기행 1



조리항공전경

국도1호인 통일로는 경의선에 이어 파주 근현대사의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것줄이다.

조선시대 9대 간선로중의 국도1호선 격인 의주대로는 서울-벽제-광탄-파주-임진나루-동파나루-개성-평양-의주와 중국으로 통하는 유일한 육로로서 정치·군사적인 기능을 수행하던 중요한 도로 역할을 하였으며 대체로 산간지방을 통과하는 구간이었다.

일제강점기에 철도와 국도가 건설 당시 의주대로가 비교적 험준한 산악지대를 통과하는 단점으로 통일로 구간은 지금의 위치인 서쪽의 저평한 지역을 따라서 국도1호가 건설되었다.

경의선이 개통된 1906년을 전후하여 통일로 구간도 교하현(지금의 금능동)과 이어지는 도로에 맞추어 공릉천과 산이 이어지는 하천변 중심으로 도로가 확장 되었을 것이다.

당시 국도1호는 문산읍 마정리까지 연결된 것으로 추측되나 임진강을 통과하기 위한 교량이나 연결도로에 대한 기록이 없어 정확한 연결로는 확인할 수는 없다. 다만 임진강 철교 상류의 임시도로나 교량이 설치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며 국도1호선은 일제의 러일전쟁과 중국침략을 위한 중요 보급로로 사용되었



다.

한국전쟁 발발시에는 임진강 철교로 이어지는 적의 주공격로 방어하기 위해 육군1사단이 임진강 철교에 폭약을 설치하였으나 불발로 실패하기도 하였으며 후퇴시 국도1호선 중심으로 방어 작전을 펼치기도 하였다.

미군의 인천상륙 작전으로 전세가 역전되면서 국도1호선은 서부전선의 주 공격로로 이용되었으며 경의선 기차도 운행되었다. 그러나 중국군의 개입으로 연합군이 다급하게 후퇴를 하면서 1950년 12월 31일 미군이 장단역에 정차된 기차를 총격으로 거부하고 후퇴하였으며 임진강 철교도 이 당시에 폭파된 것으로 추정된다.

1951년 9월 28일 서울을 수복하고 다시 북으로 반격하면서 임진강은 주요 전선으로 부각되었고 국도1호선은 주요 보급로 역할을 하였으며 임진강 도하를 위해 부교나 임시가교를 설치하여 병력과 군수품을 수송하였다.

1953년 7월 휴전협정이 체결되면서 통일로는 포로수송 및 정전회담 참석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되었으며 1971년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서 은평구 진관내동을 지나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에 이르는 68.5km 구간의 비포장 국도를 4차선으로 확포장하여 1972년 3월에 개통하였다.

통일로 확포장 개통은 사실상 박정희 정권이 72년 7월4일 남북공동성명 발표를 위한 남북협상 왕래 도로로 이용할 목적을 갖고 현대건설에 공사를 맡기어 1년만에 완공되었다.

기록에 따르면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이전에 서울의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1972년 5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 통일로와 임진강철교를 이용하여 평양을 방문해 김영주 조직지도부장과 회담을 진행하였으며, 북한의 김영주 부장을 대신한 박성철 제2부수상은 1972년 5월 29일부터 6월1일까지 통일로로 서울을 방문하여 이후락 부장과 회담을 진행한 것으로 되어있다.

휴전후에도 통일로는 남북교류의 주통로로 이 곳을 왕복하는 북한 당국자에게 북한보다 잘 사는 모습을 보여 주기위해서 정부가 관심을 갖고 도로주변 환경 정비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다.

통일로 주변환경 정화사업은 당시 파주군에서 직접 담당하였으며 당시 임명제 군수에게는 가장 막중한 사업의 하나로서 도로변의 공원화 사업, 꽃길 가꾸기, 주택개량 사업이 행정의 최우선 이었다.

지금도 통일로 주변에는 당시에 정화사업으로 주택개량이 된 빨간색과 파랑색의 지붕의 미니2층이라 건물 형태가 많이 남아 있다. 70년대말 이런 건물을 짓기 위해서 주택별로 담당공무원을 배치하여 건축비가 부족한 가구는 용자를 지원해주면서 기존 주택을 개축하게 하였다.

이와함께 통일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도로변에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지금의 장곡 소공원, PX마을 관사 주변 공원, 봉서리 공원, 여우고개 공원이 당시 사업으로 조성되었으며 매주 토요일이면 공무원들이 제초작업에 동원되었다.

은행나무와 코스모스도 이때 통일로 전구간에 식재하여 관리해왔으며 통일로의 명물로 유명해 코스모스를 배경으로 사진 찍는 사람들이 많았으며 지금은 파주시의 상징물로 지정 되어 있다.

<다음호 계속, 2011. 1. 6, >

## 통일로 기행2



파주여고앞 통일로

파주지역은 군사적 요충지로서 군장병이 많이 근무하고 서울과 인접하여 통일로변에는 파주군의 봉일천, 고양군의 삼송리, 서울의 구파발에 군 검문소가 설치되어 있었다. 70년대말까지는 한국군헌병과 미군도 함께 근무하면서 통일로를 통과하는 버스와 차량을 검문하였고 군인의 위수지역 이탈이나 미군수 물자 유출 단속을 병행하였다.

통일로는 79.12.12에 발생한 쿠데타 당시 파주시 아동동에 위치한 제2기갑여단이 전차35대와 장병 186명이 육군제9사단 29연대와 통일로에서 합류하여 중앙청을 점령하고 그해 12.17일 쿠데타에 성공하고 복귀하였던 역사를 갖고 있다.

이 당시 71방위사단장인 백운택 중장은 당시 제2기갑여단장 이상규 중장에게 전화를 걸어 수도기갑사단 전차에 대항할 수 있는 전차부대의 동원을 요청하여 이루어 졌다.

조선시대 이후 한국이 근대화 되면서 통일로는 파주시의 동백과 같은 존재였다. 먼지가 뽀얗게 일어 나는 비포장도로를 마이크로버스가 시골길을 달리고 서울 흥은동을 왕복하는 버스에는 학생과 미군 물자를 내다 파는 사람들로 가득차 있었다. 그래서 옛날 고양군까지 관할 하던 파주세무서가 금촌에 있었다. 통일로를 통하여 들어 오는 파주입구에는 커다란 성문이 도로 한 가운데를 막

고 있다. 한국전쟁시 임진강 철교를 통과하여 통일로로 진격해오던 전차에 밀려서 후퇴하였던 경험으로 통일로에는 대전차 방어용 방호벽이 여러 곳에 설치되어있다.

이 방호벽은 전쟁시 구조물에 폭약을 설치하여 도로 한 가운데로 무너뜨려 적의 전차를 5분 정도 지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방호벽을 막 지나면 검문소가 있는데 원래는 봉일천 입구 삼거리에 있던것을 1980년대쯤 지금의 자리로 이전되었다. 광탄면 분수리에서 연결되는 도로가 개설되면서 이곳으로 이동된 것으로 추측된다.

개설된 이도로 우측으로 2km정도 가면 자연발생적으로 공장들이 집단화된 장곡산업단지가 있고 좀 지나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면 포철야구장이었던 곳이 골프장으로 바뀐 곳이 나타난다. 이 골프장 앞을 직진하면 장곡저수지가 있는데 좌측에는 하니랜드라는 유원지가 있고 우측에는 장곡리 마을이 있다.

장곡리 검문소를 지나자마자 좌측에 프로스펙스, 파크랜드 등 유명 의류메이커 20여개가 업소가 우후죽순식으로 산재 되어있다. 일명 장곡패션타운이라 할 만하다. 이 상가들은 통일로 옆에 위치하여 따로 광고할 필요가 없고 주차하기가 쉬워 요즘 경기가 좋지 않은 지금도 찾는 사람이 많이 있다. 이곳의 상가주인들의 인심도 넉넉하다. 가격이 비싼 것은 사장에게 껏속말로 조용히 이야기하면 깎아 주기도 한다.

장곡 패션타운을 막지나면 1996년도에 파주시가 시 소유의 토지를 농협에게 무상임대해 주어 건립된 농협하나로 마트가 있다. 그 당시 파주 지역에 대형마트가 없던 시기라서 상당히 매출 규모가 컸었지만 지금은 금촌 시내의 여러개의 대형마트와 교하에 이마트, 문산에 홈플러스 등이 생겨 예전만 못하다.

<다음호에 계속, 2011. 1.6, >

### 통일로 기행 3

고양시와 파주시의 경계를 지나 통일로변 농협 하나로 마트 입구 옆에는 장곡 공원이 있다. 이 공원도 통일로 조성후 자투리 땅을 이용하여 조성한 공원이다. 이 곳에는 기념조형물이 많이 있다. 7~80년 당시 남북교류가 활성화되면서 임진각과 더불어 각종 조형물 설치를 선호하는 장소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장곡소공원에는 파주군 징집 제1차 6.25참전비,김종문 장군 시비, 김기팔 통일염원 방송비,새마을 운동기념비 등 10여개의 기념 조형물이 세워져 있다.

그 중 출처 불문의 김기팔 방송비가 궁금증을 더하게 한다. 이 기념비는 6.25 참전용사도 아니고 파주 지역과 관련되어 있



장곡공원안내 표석

지 않은 인물이기 때문이다. 김기팔 작가에 대하여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 보았다. 김기팔 작가는 80년대 '제1공화국 (mbc)', '엄복동(mbc)' 등의 정치드라마를 주로 쓴 유명한 방송작가였다.

한국방송작가협회에서는 작가 김기팔이 열성을 다한 역작은 정치 다큐 드라마 「정계야화」라고한다. 제1공화국 당시 자유당과 민주당이 대결하고 타협하는 정치사를 사건별, 쟁점별로 추적하여 신랄하게 비교 분석함으로써 군사정권의 폭압에 억눌린 시민들에게 위안과 용기를 주고 민주의를 고취시켰다고 설명한



김기팔기념비

다.

김기팔 작가는 1937년 평안남도 용강출생으로 1960년 KBS 라디오 연속극 현상모집 '해바라기 가족'으로 당선되어 방송작가가 되었다. 그리고 1991.12.24 향년 55세로 별세하였다. 역동기 시절의 방송작가로서 기존 질서에 대한 비판과 행동에 앞선 사람으로 평가되고 장곡공원에 기념비가 세워졌다. 이 곳에 세워진 과정은 자세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평범한 인물이 아닌 인물로서 한국역사를 되돌아 보는 기회를 갖게 한다.

다음은 김기팔 통일염원방송비 전문이다.

밤새 뜯눈으로 지새다가 신새벽에 돌아가셨다.

밤새 사악한 무리를 질타하고 한 품은 이들을 달래시던님은  
민주와 통일의 먼동이 틀 무렵 기어이 돌아가셨다.

그리시던 북녘 고향 저만큼 보이는 곳에서 넘어여,

아직도 걷히지 않은 어둠을 지켜

다가올 찬란한 대낮으로 증거하시라.



(글 김지하(金芝河), 조형 심정수(沈貞秀) )

이 장곡공원의 아래쪽에는 공릉천이 흐르고 있으며 축구장 3개 크기의 고수부지가 있다. 농협하나로 마트 쪽에는 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중간에는 축구장과 관람 스탠드가 있다. 나머지 부분은 나대지로 여름에는 잡초가 무성해져 있다.



새마을운동기념비



해병대참전비

또 이곳은 금촌 교하교부터 이어지는 7.9km 구간의 자전거도로의 종점이다. 공원 반대편에는 비닐하우스 단지가 있으며 금촌방향에는 한미 해병참전비가 자리 잡고 있다. 이 참전비는 1950년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우리 해병과 미 해병의 넋을 추모하기 위해 1964년 해병대사령부에서 금촌진입도로 입구 말레 이지아교 부근에 참전비를 건립하였었다. 1984년에 금촌진입 도로 확장에 따

라 해군본부에서 원래의 비명 및 비문을 되새겨 이곳에 옮겨 새로 재건립하였다.

장곡공원은 파주시 길목에 위치해 있어 파주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역사의 중심지로서 수많은 역사가 서려있다. 국도1호선을 지나는 이들에게 다른 도로와 다른 느낌을 가질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2011.1.16, >



금촌 피난촌 겨울나기



금촌 아리랑 고개



금촌초교 방향 고개길



금촌 시장방면 골목길



금촌시장방면 골목길





금촌 율목지구



금촌 너와지붕 주택

금촌시장에서 서쪽의 산동네를 지금은 율목동이라고 부른다. 경의선이 생기면서 금촌역 중심으로 마을이 이루어지다가 6.25 전쟁후 피난민들이 자리잡았던 동네이다. 금촌역 북쪽 새말과 비슷한 시기에 마을이 형성되었다. 당시 궁색했던 시절에 자리잡았던 건물이 차차 새건물로 바뀌었다. 아직도 대다수의 건물들은 당시의 구조와 재료가 남아 있다.

이제 에어컨과 자가용들이 집집마다 자리잡고 있다. 골목마다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가 정겹게 들려온다. 그렇지만 아직도 연탄을 사용하는 건물이 있다. 동네 곳곳에 점집이 유난히 많이 있다. 아마 시장과 가까이 있기도 하지만 이 마을 거주자들이 아직 넉넉하지 않은 사정으로 자주 이용한다는 생각이 든다.

이 동네가 이제 재개발된다고 한다. 개발 면적이 54천평방미터 정도이고 이곳에 살던 751세대가 이제 살던 집을 정리하게 될 것이다. 2009년 12월에 재개발 시공사로 SK건설이 선정되었고 2014년에 완공할 계획이라고 한다.

율목지구 재개발과 함께 순달교 방향으로 인접한 지역도 금촌2동2지구라는 이름으로 재개발 된다. 2009년 6월에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었고 2010년 1월에 재개발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 지구는 35천평방키로미터 면적에 약5백세대가 거주하고 2013년에 완공할 계획이다.

금촌초등학교를 넘어 다니던 골목은 별로 변화가 없다. 아직도 이곳 학생들은 이 고갯길을 이용하고 있다. 이 길도 사업이 끝나면 반듯하고 깨끗한 길로 변화될 것이다. 그러나 그 곳을 이용했던 많은 사람들의 기억은 개발되지 않을 것이다. 어려웠던 시절의 추억이 늘 가슴에 남아 있을 것이다.<2011. 1. 10>

### 백년 역사의 오류가 있는 고려벽화묘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 끝자락에서 세월을 보내는 아쉬움과 함께 역사의 발자취를 찾는다는 설레임 속에서 간간히 떨어지는 빗방울 맞으며 국도37호선을 달린다.

작년 12월에 대법원에서는 청주한씨문열공파종중의 분묘기지권 확인에 관한 항소를 기각 판결하므로서 그동안 청주한씨 한상질 묘로 관리해오던 고려벽화묘가 안동권씨창화공의 묘소로 바뀌게 되었다. 내가 서곡리 고려벽화묘를 답사하게 된 것은 중등 교과서에서 벽화의 주인공으로 추정되는 사진과 권씨 종중으로부터 대법원의 판결문의 사본을 받고서부터이다.

6백여년 지난 후에 발굴된 묘지 안에서 묘의 주인공의 일생을 기록한 묘지석이 발견되므로서 2개의 묘중 앞쪽에 있는 묘가 권준의 묘이고 한상질의 조상묘는 뒷편에 있는 것으로 판결이 되었으니 청주한씨 종



권준의 묘



고려벽화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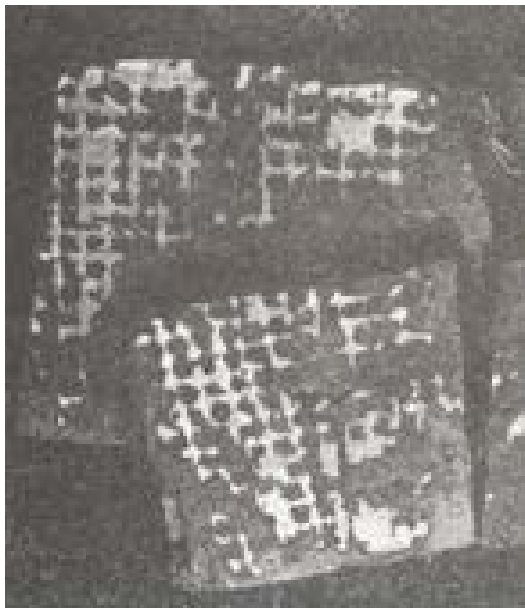
중은 세상을 뒤집어 놓는 듯한 심정이 되었을 것이다.

그 묘지석은 분묘 외부에서 발굴되었으나 1980년경 청주한씨종중에서 분묘내부 입구에서 발견하였었다고 증언하였고 묘지 내부에서 발견된 석편을 합쳐 본 결과 ‘증익창화공묘’란 제액 아래 ‘유원고 구려국삼한벽산공신 삼중대광 길창부원군 권공묘지명병서’라고 기재 되어있고 권준의 행적과 증조부 및 자녀, 손에 이르기까지 가계보가 기록이 되어 있었다.

나는 묘의 주인공이 바뀌게 된 상황이 매우 궁금해졌다. 그래서 그동안 바쁜일로 중

지했던 답사를 다시 시작하면서 추석 기간중에 발굴 보고서와 판결문에 나온 인물과 사건들을 인터넷에서 찾아 보았다.

안동권씨 홈페이지와 규장각, 여러 가지 블로그를 찾아 보니 6백년만에 묘지 주인공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을 이해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이 사실마저도 반



지석묘

전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대충의 줄거리를 정리해본다.

우선 문열공 한상질은 1392년 7월에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고 국호를 이성계의 고향인 ‘화령’ 과 ‘조선’ 이라는 두 가지 국호를 갖고 명나라에 승인받기 위해서 자칭하여 파견가서 ‘조선’ 이라는 국호를 정한 공로로 농토50결과 경상도 관찰출척사가 된 인물이다.

문열공 한상질의 부인은 권씨로 고려벽화묘 주인공인 권준의 둘째아들 권적의 딸로서 한상질은 손주 사위가 되며 권준의

큰아들인 권염은 권용을 낳았으며 권염은 이 사건의 당사자인 아들 권진(權璿)이 있었다.

권진은 공민왕때 귀족들의 미소년 자제로 구성되어 왕위를 보좌하는 일명 자제위의 일원으로 공민왕이 총애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공민왕은 정신적으로 피폐되어 왕비와 궁녀 그리고 자제위와 문란한 성 관계를 가지므로서 자제위중 홍륜이 왕비인 익비를 임신시키게 되었다.

이 사실을 내시인 최만생이 공민왕에게 밀고를 하였으나 공민왕은 왕비를 임신시킨 홍륜과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자를 죽이겠다고 말하자 내시와 홍륜은 공민왕 침소에서 왕을 시해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권진은 공모자로 처참되고 그의 아버지도 유배지에서 살해되었다. 이에따라 1374년부터 권진의 형 권적(權適)의 사위인 청주 한씨 문경공(文敬公) 한수(韓脩)가 몰락한 처가를 수습해 권진의 증조 할아버지인 권준(權準)의 제사를 잇게 된 것이다.

권준은 생전에 현재 묘지가 있는 곳을 장지로 유언하였고 이곳은 당시 폐사된 자효사(慈孝寺) 서쪽 언덕으로 권준이 중수하였었다. 자효사는 원래 창화이공(창화는 호이고 성명 이모) 또는 이창화가 창건하였는데 권준이 생전에 이창화

를 흠모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스스로가 후신이라고 생각하였다.

권준은 할아버지 권단 이래로 명문가가 되었으며 당시 권력과 재력을 가진 자로서 충숙왕이 권준의 집을 보고 국왕으로서도 미치지 못하다는 한탄을 하였으며 가족들이 죄를 지어도 처벌 받지 않았다고 한다. 이 묘지는 현재 파주시 진동면 서곡리 산 112 임야 19천평 중 20여평 정도가 묘역으로 1918년 청주한씨 창화공파 종중인 한창현의 명의로 있다가 1991년 종중의 명의로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발굴 이후 파주시에서는 2001년 12월 21일에 향토 문화재 제16호로 지정하였으며 현재 종중에서는 국가 문화재로 승격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군막사가 있었던 앞 도로를 지나자 마자 폭우로 길이 꽤여 있어 진퇴양난의 상황이 되었으나 잡초가 무성한 쪽으로 바퀴 한 쪽을 걸치고서 계속 진행을 하였고 10여분 후에 파평면 장파리의 리비교로 이어지는 삼거리에서 스토리 미군사격장 쪽의 포장도로를 달렸다.

2km 정도 포장도로를 달린 후 비슷한 산자락의 두 번째에서 좌회전하여 농경로 막 들어서면 삼거리가 나오고 왼쪽 길로 차를 몰았다. 승용차 한 대가 지나갈 수 있는 농로로 1km 정도 올라가자 왼쪽 편으로 70년대 군대에서 만들었음직한 문화재 안내판이 나타난다.



오른 쪽으로 야트막 언덕에 묘지가 보이면서 좌우에는 크지 않은 연못이 있으며 그곳에서 나는 물 흐르는 소리와 까마귀의 비행은 서곡리 창화동의 자연경관을 생기있게 만들어 주어서 맘이 즐거워 졌다.

추석 성묘를 위하여 입구에서부터 묘지까지 삭초 작업은 깨끗하게 되어 있었으나 삭초 작업을 안동권씨와 청주한씨 종중 중에 어느 종중이 하였는지 궁금



하였다.

언덕을 30m 정도 올라 가면 돌 계단이 있고 그 위에 고려벽화묘가 화려하지 않은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발굴 이전에 세워진 생동 맞은 한상질의 묘비와 상석, 그리고 3백여년전에 만들어졌다는 비석이 공존하고 있다. 또 고려벽화묘 네 귀퉁이에 보통 석수가 1마리씩 세워 있어야 하는데 북쪽 동편에는 유실되어 빈자리로 남아 있었고 동쪽에는 장명등1기가 세워져 있으나 제대로 조립된 장명등이 아니라는 것을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알 수 있을 정도이다.



서쪽편에는 문인석상이 얼굴, 몸통, 다리부분만 부조한 것으로 형상만 타나낸 인물상으로 서있는데 머리 윗부분은 낮은 관 모양을 표현한 듯 이마 위에 음각선을 돌려져 있고 비교적 큰코, 작은 입등이 간략화되어 기교는 찾아보기 어렵다.



경남 거창에 둔곡리고려벽화묘에 있는 문인석상과 비슷하여 고려 공민왕릉인 현릉의 문인상과 함께 비슷한 시대의 양식 및 기법을 갖추고 있다. 그 고려벽화묘 뒷 편 가까이 석축 위에는 한상질의 부인들의 묘라고 불리는 묘가 단아하게 자리잡고 있으며 산소 날개 없이 바로 언덕 정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고려벽화묘와 한상질 부인들의 묘는 6백년전에 세워진 위치에서 석수나 장명등은 부분적으로 움직여져 설치된 것으로 보나 문인석과 봉문의 위치는 변화가 없었을 것이라고 발굴단은 보고있다.

이러한 형태의 고려 벽화묘는 주로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을 중심으로 경기도 지역에 분포 되어 있으며 구조상 다듬은 판석이나 사각 돌을 벽재로 사용하고,

넓은 판석으로 덮개(천정석)로한 무덤으로 벽화는 검정색으로 윤곽을 잡은 후 자연광물성 안료로 12지신을 주제로 채색되어 당시 의복사 및 미술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비가 올러는지 가을이 짙게 묻은 빗방울이 묘지 주변의 상수리 나무 잎을 흔들고 이름모를 새의 날개짓이 심상치가 않아 서둘러 묘지를 내려 온다. 50m도 채 내려오기 전 좌측편에는 창화사 절터 인듯한 곳에 콩밭이 있다. 인가도 없는 곳에서 콩밭을 지키던 백구는 관하게 짚어대며 나를 쫓으려 한다.

찾아 올때의 길이 하도 험하여 나는 동과마을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6백년간의 오류가 가을로 채색 되어가는 그곳을 떠났다. < 2005.9.24 >

### 쿠테타의 본거지 임진강변의 덕진산성

날씨에 맞추어 사람의 목소리와 움직임도 닮아 가는 것처럼 흐린 날씨여서인지 일요일의 아파트는 아무도 없는 듯 조용하다. 비가 온다고 하여 답사를 다음으로 미루려다 한 달 전부터 마음먹었던 일이라 등산화를 신고 덕진산성으로 출발하였다.

멀리 보이는 민통선의 침엽수들은 봄기운이 물들어 가는 것이 느껴지고 임진강물이 바람에 찰랑거리는 것을 보자 묵은 겨울을 보내는 것처럼 마음이 상쾌해진다.



JSA부대와 물탱크

덕진산성은 1994년 군사유적에 대한 지표 조사때 새롭게 발견된 포곡식 산성(봉오리 중심으로 외곽에 성벽을 쌓는 방식)으로 인조반정 때 반군의 주력부대가 본거지로 사용하였으며 '80년 12월 12일 전두환 계엄사령관이 주축이 되어 일으킨 쿠테타에 동원된 금촌에 있는 제2기갑부대가 서울에 입성했던 것처럼 당시 광해군을 밀어내고 인조반정을 성공시킨 곳이기도 하다.



덕진산성 입구

또 반란군에 참여한 장단부사 이서(李曙)의 부인이 남편을 기다리다 쿠테타가 실패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임진강에 투신하게 된 설화도 있는 산성이다. 덕진산성은 현재 행정구역상 파주시 군내면 정자리 산 13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민통선 지역내에 있어 방문을 위해서는

군부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문산읍 마정리의 통일대교나 파평면 울곡리의 전진교를 통하여 임진강을 건너 갈 수 있다.

통일대교를 건너 판문점으로 향하는 국도1호선으로 가다가 DMZ 입구에 있는

JSA 직전에서 우회전하고 정자리 방향으로 직진하면 전초TF라는 검문소를 만나게 된다.



덕진산성 발굴중인 성벽

전초TF 검문소에서 2km를 채 못가면 좌측에 백학산이 멀리 보이고 아래쪽에는 군부대 막사가 있는데 6.25 이전에는 장단군청이 있었으며 산 아래 쪽에는 장단향교가 있었던 곳으로 초석과 담장이 남아 있다.

동파리로 가는 도로에서 미군훈련장을 막 지난 후 우회전 하여 개울 건너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따라 올라 가면 정상 쪽에서 삼거리를 만나게 되고 그 곳에서 포장 되지 않은 도로로 들어서면 인삼밭이 나오게 된다. 그곳에서 3백미터 정도 올라가면 낮은 산을 만나게 되며 그곳이 덕진산성 주봉이 되고 고개를 넘어 서면 바로 임진강 쪽으로 봉오리가 하나 더 있고 내성의 중심부가 된다.

성곽 안에는 봄 기운이 이제 시작되어서 인지 파릇한 새싹은 양지와 마른 갈대 아래에만 조금 보이고 전체가 갈색 빛이다.이 곳은 작년에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에서 시굴조사를 하면서 지뢰를 발견했던 지역으로 아직도 갈대와 잡초가 무성하여 사람의 출입이 어려운 곳이기도 하다.

겨울철이나 숲이 우거지기 전인 지금 계절은 동물이나 사람이 다닌 흔적을 따라 다니기가 수월하나 여름철 숲이 우거지면 제대로 성곽의 형태를 알아 보기가 어렵다.

덕진산성은 「대동여지지」, 「신증동국여지승람」, 「조선고적조사」 등에 기록이 있고 조선왕조실록에는 여러번 등장하는데 조선시대 이전의 기록은 발견되지 않고 있어 대체적으로 삼국시대에 축조하여 사용하다가 광해군 말기(1662년)에 임진왜란시 일본의 임진강 도하를 제대로 막지 못하였던 이유로 재수축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덕진산성은 내성과 외성으로 나누어져 있고 내성은 해발 85m 봉우리와 임진강변 쪽의 해발 65m 봉우리를 가운데 두고 산 능선을 따라 표주박 형태로 구축되어 있으며, 내성의 성곽 길이는 481m이고 내성의 넓이는 축구장 1.5배 정도의 규모로 좁은 편이다.

외성 길이는 948m 정도되며 내성 북벽의 동단지점에서 북동쪽으로 이어지는 능선을 따라 가다가 다시 임진강 방향으로 돌아서 내성 남단 쪽으로 이어지고 성벽은 삭토와 성토방법으로 토성을 구축하였으며 북쪽 방향의 성외벽은 석축한 흔적이 여기 저기 남아 있다.

내성을 조금만 걸어도 외편들이 발에 차일정도로 많이 볼수 있으며 이곳에서는 삼국시대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기와편이 다량 채집되었고 특히, 고구려의 토기편과 외편도 포함되어 있으며 봉우리가 이어지는 경사면에 집수정 또는 우물지로 추정되는 곳도 발견되었다.



덕진산성에서 바라본 초평도

집수정은 내성 중심 부분에 비교적 완만하게 경사진 계

곡을 성벽으로 가로막고 있는 성안 쪽에 4~5m의 깊이로 경사진 웅덩이로 되어있어 2004년 5월에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에서 시굴조사를 하였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대체적으로 서쪽에 있는 성벽이 완전하게 남아 있지만 하층부와 상층부의 축조 방식이 다를 뿐만 아니라 석재도 차이가 있어 2차례 이상 대대적인 개축 공사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고대나 현재도 전략적 요충지 개념이 비슷해서 전망과 방어가 유리한 곳이 요충지가 되는 것처럼 이곳 서쪽 성벽에는 6.25 당시 성벽 위에 다시 참호를 만들었던 흔적이 남아 있으며 답사 중에 당시 병사들이 사용하던 M1 소총의 탄피도 발견 되었다.

덕진산성 남쪽에는 임진강 내 유일한 섬인 초평도와 멀리 파주시 문산읍 장산리가 보이는데 초평도는 조선왕조 실록에도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조선 후기에 이 곳에서 S자로 물길이 급하게 돌면서 상대적으로 유속이 떨어지는 반대쪽에 토사가 퇴적되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내성을 어느 정도 답사하고 서쪽 방향 외성의 성곽을 향해 가면서 고라니의 배설물이 여기 저기에서 발견되었으며 사람이 다녔던 길보다는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들짐승이 만든 길이 많이 나 있고 인기척에 놀라 고라니가 날쌔게 도망가는 것도 볼 수 있었다.

성 내부에는 아직 갈대가 무성하지만 갈대와 잡초의 대부분이 동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임진강이 서해와 연결되어 서풍이 많은 곳임을 알 수 있다.

덕진산성은 아직 본격적인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제대로 성곽을 볼 수는 없었지만 임진강가에 몇 개 안되는 성으로 북쪽에서 내려오는 적으로부터 덕진나루를 보호하고 남쪽에서 올라오는 보급선을 연결하는 요충지로 보인다.

이 곳을 답사하기 전에 자료를 조사하면서 민통선 지역 설화 중에 덕진당에 관한 설화를 보고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인조반정때 주력부대를 이끈 장단부사 이서에 관한 사실적인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인조반정은 1623년 서인이 광해군과 북인 정권을 몰아내고 능양군 종(인종)을 왕으로 옹립한 사건으로 보수적이고 사대적이던 서인세력이 서자이면서 차남인 광해군의 대청외교와 북인의 중용에 반발하여 1620년부터 신경진이 반정 계획을 잡고 구굉, 구인후, 김유, 이귀, 최명길 등을 포섭하여 진행 시켰었다.

이 모반계획은 거사 직전에 누설되었으나 김자점과 심기원 등이 후궁에 청탁을 넣어 무마시키고 관련자를 외직으로 보직 시키면서 그 중에 이서가 장단부사가 되어 덕진에 산성을 쌓고 군졸을 모아 훈련을 시키게 되었다.

1623년 3월 12일에 이서는 7백여 군졸을 이끌고 한양 연서역에서 이괄과 합류하였으며 창의문과 돈화문으로 진군하여 쿠데타를 성공하고 다음 날 인종이

즉위하게 되었다.

덕진당 설화는 이런 과정에서 이서가 장단을 출발할 때 부인에게 실패하면 돌아 오는 나룻배에 흰 기를 달고 성공하면 붉은 기를 달겠다고 약속하였는데 멀리서 오고 있는 나룻배가 백기를 달고 있는 것을 보고 이서 부인이 임진강으로 투신하게 되었다.



임진강내 마늘밭

이서가 도착하여 자초지정을 듣고 있을때 뱃사공이 무릎 꿇고 사죄하였는데 날씨가 더워 저고리를 벗어 걸었고 그 저고리 때문에 붉은 깃발이 가리게 되었다고 말하였다.이서는 아내가 몸을 던진 언덕에 덕진당이라는 재각을 짓고 원혼을 위로 하였으며 임진강가에 사는 어부들은 풍어나 수재를 막기 위해 기원제를 지냈다는 이야기도 전해내려 오고 있다.

지금 덕진당에는 재각이 없지만 임진강에 가까이한 봉오리에는 10여평의 평지가 있으며 봉우리가 강가로 돌출된 형상을 하고 있어 임진강 경치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답사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이서의 부인이 투신한 장소가 궁금하여 강 아래로 가보고 싶은 마음에 삼거리에서 큰길로 들어 오던 반대 쪽으로 차를 몰고 갔다.

10여분을 강쪽으로 갔더니 제방이 나오고 제방따라 서쪽으로 올라가다 보니 제방이 덕진산성 산자락에서 끝나게 되어 있었다. 제방 아래로 내려가 강변에 있는 갈대숲을 따라 10여분 걸어서 덕진산성 아래 부분으로 갈 수 있었다.임진강변에서 덕진산성 바라보니 경사면이 80도 이상 되고 이름 모를 나무들이 무성하였다. 초평도가 바로 눈앞에 들어올 정도로 가까이에 있었고 바닷가에서나

들을 수 있는 파도소리가 들려 왔다.

농부들의 손길이 바빠지고 임진강변에 자라는 마늘이 푸르게 질어 가는 봄의 문턱에서 이번 답사를 통하여 임진강변에는 역사의 자취가 유난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 또, 공교롭게 인조반정이 1623년 3월 12일에 거사되었고 제5공화국 건국에 단초를 제공했던 군사 쿠데타가 1980년 12월 12일에 이루어졌다는 것과 파주의 장단과 금촌에서 출발한 주력부대가 서울에 입성하여 쿠데타를 성공했던 역사때문에 윤희에 대한 상념을 가져볼 수 있었다.

돌아 나오는 길에 천연 기념물인 재두루미 한 쌍이 논바닥에 다정하게 서 있는 것을 뒤로 하면서 통일대교를 건너오며 답사를 마쳤다 < 2006.3.20 >



### 고려시대 국립호텔 혜음원지를 찾아서

지난 겨울에는 몹시 가물어서인지 3월이 되었지만 봄의 새싹이 보이지 않는 화사한 날에 서울 시립묘지 근처 광탄면 용미리에 있는 고려시대 국립 숙박시설인 혜음원지를 찾았다. 이 곳은 고양시와 파주시 경계 부근으로 서서울 골프장 아래 쪽에 위치해 있으며 옛날 서울-광탄-임진강 나루-개성-평양을 오가는 국도1호선이라 할 수 있는 도로에서 3~4백미터에 동쪽방향에 위치한다.

혜음원지를 가려면 서울시립장례예식장에 들어 가는 길에 서 동네 사이에 있는 1차선 도로로 들어 가야하는데 왼쪽으로는 산을 돌아서 차량으로 갈 수도 있고 우측 소로길을 따라 청룡사절 앞으로 혜음원지 입구를 찾아 갈 수 있다.



혜음원에서 본 골프장 원경

이 곳 혜음원은 1122년 고려 예종때 완공된 여행객 숙소로 당시 수도인 개경에서 남쪽으로 약 50여km 정도 거리에 위치하며 남경(지금의 서울)과는 20여 km 거리에 위치한다.

당시 남경은 예종의 선왕인 문종이 동경(지금의 광주)을 대신하여 남경에 신



혜음원지 전경

궁을 건설하면서 서경과 개경을 합하여 3경을 만들었고 영남지방을 내려가기 위해서 통과해야 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옛날 개경에서 남경에 볼 일이 있으면 새벽 밥을 해 먹고 임진강을 도강하여 부지런히 걸어 야만 해질 무렵에나 혜음원지 부근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곳은 산세가 높고 인적이 드물뿐만 아니라 산적이 출현하여 혼자서는 혜음령 고개를 넘지 못하였다.

이 혜음령 고개에 대한 전설에 따르면 산적 두 명이 어느 날 많은 물건을 빼앗게 되자 술을 한 잔 먹고 분배하자며 한 산적이 마을로 술을 사러 내려가 술에다 독약을 타서 왔는데, 남아 있던 산적이 숨어 있다가 올라 오는 산적을 죽이고 빼앗은 물건을 모두 가지려고 했다. 그러나 목이 마르던 산적은 죽은 산적이 갖고 있던 술을 마시



계단

고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혜음원 건립에 대하여는 김부식의 「혜음사신창기」에 남아 있는데, 이 기록에 따르면 1105년에 예종이 즉위하고 1109년 가을 8월에 측근의 신하인 이소천이 임금의 사명을 받들고 남쪽 지방에 갔다가 돌아왔다. 임금께서 "이번 길에 민간의 고통스런 상황을 들은 것이 있느냐" 물으시니, "봉성현에서 남쪽으로 20리쯤 되는 곳에 조그마한 절이 있었는데, 허물어진지 벌써 오래였으나 지방 사람들은 아직도 그곳을 석사동이라 곳이 있습니다.

동남방에 있는 모든 고을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위에서 내려가는 사람이 모두들 이 길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깨가 서로 스치고, 말은 굽이 서로 닿아서 항상 복잡하고 인적이 끊어질 사이가 없었는데, 산 언덕이 깊숙하고 멀며, 초목이 무성하게 얽혀 있어서 호랑이가 때로 몰려다니며, 안심하고 숨어 있을 곳으로 생각하여, 몰래 숨어서 옆으로 엿보고 있다가 때때로 나타나서 사람을 해친다고 합니다.

이 뿐 아니라 간혹 불한당들이, 이 지역이 으스스하고 잠복하기가 쉬운 곳이며 다니는 사람들이 지레 겁을 먹고 두려워하는 것을 이용하여, 여기에 와서 은신하면서 그들은 흥행을 감행하기도 하였다. 이리하여 올라오는 사람이나 내려가는 사람이 주저하고 감히 전진하지 못하며, 반드시 서로 경계하여 많은 동행자가 생기고 무기를 휴대하여야만 지나갈 수 있는데도, 오히려 살해를 당하는 자

가 1년이면 수백 명에 달합니다 “고 보고하였다.

임금께서는 측은히 이를 딱하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면 폐해를 제거하고 사람이 안심하게 할 수 있느냐" 하셨다. 아뢰기를, "전하께옵서 다행히 신의 말씀 들어주신다면 신이 한가지 계교가 있사온데, 국가의 재정도 축나지 아니 하며 민간의 노력도 동원시키지 않고, 다만 중들을 모집하여 그 허물어진 집을 새로 건축하고 양민을 모아들여 그 옆에 가옥을 짓고 노는 백성들을 정착시키면, 짐승이나 도둑의 해가 없어질 것이며, 통행자의 난관이 해소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께서는, "좋다. 네가 그것을 마련해 보라"하셨다.

이와 같이 혜음령 고개는 군사를 동반한 왕이나 관리들의 통행에는 큰 위험 부담이 없었으나 민간인의 통행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곳으로 보여진다.

이 소천은 왕의 명령에 따라 묘향산에서 혜관스님을 찾아가 승려 1백여명과 경비를 마련하여 1120년2월에 착공하여 2년만인 1122년 2월에 완공하였으며 그후 왕이 남경 순행할 때를 대비하여 추가로 왕이 숙박하는 행궁을 설치했다고 하나 시기는 알 수 없다.

당시 사찰에서는 중요 교통로변에 숙박시설인 원을 결합한 사원을 운영해 왔는데 신도들이 희사한 미곡으로 이자를 받아 여행객에게 죽을 쑤어 급식하였다.

혜음원지는 동,북,서쪽이 산으로 둘러 있고 남쪽으로는 트여서 혜음령으로 올라 가는 도로가 보이는 양지 바른 곳에 위치하며 6천평 정도의 부지에 계단식으로 건물이 지어져 있다.

동쪽과 서쪽의 계곡 사이의 개울에서는 이름 모를 물고기들이 햇살에 번득거리고 발굴되지 않은 논 바닥에는 봄 빛이 한 창이이었다. 왼쪽 논길로 7~80m 올라서면 발굴지 하단 부분이 나타나고 그 위로 넓게 들어서면 곳곳에 초석과 장대석이 보이는데 천년이 된 보석을 만났것 처럼 경외감을 느끼게 한다.

혜음원지는 이곳 주민이 1999년 폭우로 인하여 이 지역의 상단부터 토사가 흘러내리면서 「혜음원」이라는 문구가 양각된 기와를 발견하면서 천년 동안 잠들어 있던 고려시대의 문화유산을 찾아 내게 된 것이다.

혜음원 원편에는 계곡과 인접하여 우물이 있는데 아직도 물이 가득하고 이 부분이 부엌이 있는 곳이라고 추정하고 있으며 이곳으로 연결되는 화강암 계단은 얼마나 많은 식솔들이 지나 다녔는지 아직도 반질반질하다.

혜음령을 지나 다니는 수많은 여행객에게 음식을 접대하기 위해서 하얀 저고

리와 치마를 입고 수 없이 드나 들며 이마의 땀을 닦아 내던 곱단이가 생각나는 것은 지나친 상상일까?

혜음원지의 좌우 계곡을 중심으로 중앙에 나 있는 계단식 통로를 보면 상당히 큰 규모의 시설임을 한 눈에 느낄 수 있게하고 중간 정도에 들어서면 청석이 바닥에 장식되어 있고 화강암 초석에 십자가 모양의 음각이 파졌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윤장대

이 곳은 정확하지 않으나 윤장대가 있어 한 번 돌리면 불경을 한 번 읽는 다는 불교적인 의식을 행한 장소로 보고 있다.

동쪽 상단 끝 부분에는 왕이 유숙하는 행궁이라는 장소가 1백여평 규모로 자리잡고 있으며 초석이 궁궐 방식처럼 좌우대칭의 형태를 갖추고 담장이 견고하게 설치되었던 흔적이 남아 있다.

왕의 남경 순행은 많은 군사와 신료들이 동행하고 있어 왕이 유숙할 때의 이 곳은 가장 흥청되고 마을의 큰 행사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용도미상?

행궁과 담장 사이에는 커다란 우물지가 있는데 현재는 물이 고여 있지 않지만 발굴시에는 물이 많이 나왔다고 하며 배수로를 따라 아래 쪽에 내려가면 동쪽 산

비탈을 이용하여 물이 낙차하도록 되어 있는 곳이 있다.동쪽 산비탈에서 내려오는 물은 널찍한 바위에 포석정처럼 물길을 만들어 배수로에 다시 떨어져 북쪽 배수로와 합쳐져 병목 모양으로 문을 열고 단계한 부분에서 일정량이 담수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 곳은 건물 뒤편이고 동편 담장 아래에 위치할 뿐 아니라 담수되는 한 가운

데에 긴 장대석이 있는 것을 보면 이곳에서 빨래를 하거나 목욕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된 것 같다.

동쪽 배수로에서 약간 아래로 내려 오면 폭6m 길이 15m 정도되는 면적에 지상보다 약간 높은 초석이 일정하게 설치되어 있는데 이곳은 서울의 경회루처럼 누각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누각 아래에는 북쪽과 동쪽 편에서 내려오는 물이 다시 모이는 곳으로 동편 산에 노송이 우거져 있고 남쪽으로 혜음령이 훤히 내려다 보여 왕이 행차할 때면 지역의 호족과 함께 연회가 베풀어졌을 것으로 상상된다.



우물터

이 곳에서 출토된 유물은 주로 고려시대 자기와 기와편으

로 완성된 유물은 드물고 15cm 정도 크기의 휴대용 불상이 발견 된 정도이다.

기와들의 양상을 보면 고려시대 기와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그 이전시대로 올라가는 기와들은 출토되지 않았다. 또한 동일층에서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조사된 지역의 건물들은 고려시대에 창건되어 경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기와들은 평기와류와 막새류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상당량의 명문기와와 특수기와가 출토되었다.

막새류 중에 명문이 새겨진 것은 암막새이다. 명문암막새는 막새면 좌우에 귀



배수로

목문을 두고 그 사이 중앙에 세로로 “惠蔭院”이라 양각하였다. 글자체가 동일한 것으로 보아 하나의 글자관형으로 제작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막새류는 연화문 수막새가 일부 출토되기도 하였지만 고려시대 전형적인 귀목문 수막새와 암막새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연화문 수막새는 크기와 문양에 따라 2종류가 출토되었는데, 특수한 용도를 위하여 제한적으로 제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수막새는 막새면 직경에 따라 크게 대중소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문양이나 용도에 따라 10여종으로 분류된다.

출토된 자기류는 주로 고려청자이며 중국산 자기와 분청사기도 일부 나타난다. 청자는 태토와 유약이 정선되었으며 규석을 받쳐 갑발안에서 정성스럽게 구운 고급청자가 많다. 그리고 지방가마에서 번조한 조질청자도 드물게 있다. 종류는 완, 대접, 접시, 바리떼, 잔, 뚜껑, 두침 등이 확인되고 있는데, 주로 완, 대접, 접시가 많다. 시문되어진 문양은 무문, 음각, 양각, 상감, 퇴화 등 다양한 기법이 사용되었지만 대부분 음각으로 구성했다

혜음원지는 출토된 유물이 주로 낮은 배수로 쪽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되고 당시 시대 이후의 유물이 발견되지 않았고 화재로 기와편 등이 붉은 색을 띠고 있어 몽고군 침입시 대규모 화재로 폐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선시대 혜음원(사)에 관한 기록은 '신증동국여지승람' 권 11 파주 역원조와 고적조에 보이고 있다. 고적조에는 '고혜음사'라 기록되어 사찰은 이미 없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역원조에는 혜음원이 그대로 있어서 院의 기능은 유지가 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 초 사찰에서 운영하던 원을 모두 국유화하는 과정에서 혜음원도 국유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사찰이 없어지고 원의 기능만 남았을 가능성이 있다

조선시대 혜음원의 규모는 고려시대에 비하여 축소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우선 혜음원부근에 분수원(파주 남쪽 24리), 광탄원(파주 남쪽 10리) 등이 있었다. 특히 분수원 파주에서 고양으로 넘어가는 길에 있었기 때문에 혜음원과 지근거리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사' 권 39 세가 39 공민왕 10년조에 의하면 공민왕이 홍건적을 피하여 남행할 때, 임진강을 건너서 도솔원→분수원→사평원 등을 거쳐서 광주 방향으로 이동하였다. 공민왕이 혜음원에 머물지 않고 주변에 있는 분수원에 머물렀던 것이다.

혜음원에 행궁이 있었다면 공민왕이 분수원에 머무르지 않고 혜음원에 머물렀을 것으로 생각되며 혜음원은 이미 공민왕 10년 이전에 12세기의 모습을 상실하였고 분수원 보다도 규모가 작아졌던 것으로 보인다.

계곡에 고사목과 함께 추춧돌이 텅구는 이곳은 우리 선조의 애환이 물들어 있

어 바쁜 일상을 잠시 있고  
고려의 흥망성쇠를 생각하  
게 한다.

고려는 왕건이 태봉의 왕  
인 궁예의 부하로 있다가  
호족세력을 배경으로 918  
년 포악한 궁예를 추방하고  
왕위에 올라 도읍을 송악으  
로 옮겼으며, 935년에 신라  
를 병합하고 936년에는 후



혜음원지 골짜기

백제를 격파하여 민족의 재통일을 성취했다.

그 후 거란과 몽고의 침입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고려 25대 충렬왕때부터  
는 몽고의 간섭을 받아 왕의 이름 몽고에 충성을 한다는 뜻으로 충(忠)의 이름  
을 붙이는 비운의 시기도 있었으며 요동정벌을 반대하였던 이성계가 위화도 회  
군으로 고려 역사를 종지부 찍게 한 사실은 슬한 역사의 윤회를 느끼게 한다.

오늘은 햇살이 따스해서 인지 도로변 인근의 밭과 논둑에서 봄나물 캐기에 여  
념이 없는 아낙네들을 보니 1천년 전의 풋풋한 아낙네를 만난 것처럼 바람이  
향기롭다.

천년을 잠들었던 조상들의 역사를 다시 돌아 보면서 비운의 역사를 업보  
로 갖고 태어난 우리의 존재를 다시 생각하며 완연한 봄 속으로 돌아 간다.

<2008.11.30 >

## 백성에게 의술을 다한 허준 선생묘를 가다

강원도 산자락에 큰 불이 난 다음날, 어제 내린 봄비로 민통선 안의 산과 들에 새싹들이 움터 곳곳에 연두색이 물들여 지는 날, 진동면 하포리 산 129번지에 위치한 허준 선생의 묘를 찾았다.

허준 선생을 일대기로 한 1999년도의 이은성 작가의 소설 동의보감은 3백만부 이상 팔렸고 1999년11월부터 MBC-TV에 방영된 최완규 극본. 전광렬, 황수정 주연의 드라마 허준은 시



전진교

청률 63.8%로 역대 사극 최고의 인기를 얻었다.

이 드라마에 관련된 작가와 출연자들 대부분은 일약 대스타가 되었고 이와 더불어 허준 선생도 사후에 최고의 인기를 누리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허준 선생이 쓴 동의보감은 중국에서 온 사신이 꼭 챙겨가려고 했다는 이익의 성호사설에 기록에서 보듯이 1610년에 쓰여진 베스트북이 시대를 초월하여 지금까지 인물과 작품의 가치를 올려 주고 있다.

허준 선생묘는 문산에서 전곡으로 가는 임진강과 인접한 37번 국도를 따라 가다가 파평면 율곡리에서 전진교를 넘어 강건너로 가야 하지만 이곳은 민통선 지역이라 관할 군부대(육군제1사단)의 승인이 있어야만 통과할 수 있다.

전진교를 지나 산자락에있는 2차선 포장길로 따라 올라 가다가 도로 차단을 위해 만들어진 군방어 시설을 지난 후 막다른 삼거리에서 우회전하여 허준로를 따라 1km 정도 가면 좌측편에 군부대가 나타나고 그 곳 맞은 편에 구암교를 지나서 200m 정도 위치에 허준 묘소가 있다.

허준선생묘 진입로에는 판석과 잔디가 깔려 있고 좌우에는 도토리나무, 상수리나무와 잡목이 무성하여 전형적인 한국의 산을 느낄수 있다. 진입로 우측에는 목재와 기와로 만들어진 제실이 있고 약간 경사가 심한 계단을 오르면 허준



선생의 묘가 나타난다.

허준 선생의 묘소는 재미 고문서 연구가 '이양재'씨가 1982년 허준의 친필 편지를 구하고 부터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91년 9월 30일 9년여 만



허준 성생 묘소

에 발견 되었다.

발견된 허준 선생묘는 "양천허씨족보에 기록된 "진동면 하포리 광암동 선좌쌍분"이라는 내용과 비슷한 묘와 묘비(墓碑), 문인석(文人石), 상석(床石), 향로석(香爐石) 등이 배치되어 있으며 원래의 묘비는 두 쪽으로 파손되어 땅속에 매몰된 상태였다. 발굴 당시 묘비의 마모된 비문 가운데"양평(군) (호)성공신 (허)준(陽平(君) (扈)聖功臣 (許)浚"이란 글자가 새겨져 있어서 허준 선생의 묘인 것이 확인되었다.



발견된 허준 선생 묘비

허준 선생의 출생지에 대하여 일부 학자와 강서구청에서는 허준선생이 양천허씨이므로 지금의 강서구 가양동 구암에서(옛 경기도 김포지역) 태어났다고 주장하며 구암공원과 허준기념관을 조성하고 있지만 이양재씨는 1930년도에 국세조사를 집대성한 <조선의 성(朝鮮의 姓:1934년>에는 구암주변에 집성촌 뿐만 아니라 가옥

이 전혀 없다고 되어 있어 설득력이 없다고 한다.

아울러 이양재씨는 허준 선생이 장단군(현재 파주시) 대강면 우근리에서 태어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허씨대중회에서 동의하였다고 한다.



출생지라고 보는 우근리는 허준 묘소의 동북쪽으로 1930년도 국세조사 내역에 장단군 독정리(篤正

진입로와 재실

里) 30호, 우근리(寓勤里) 66호가 있었으며, 해방전까지 대규모의 양천허씨 집성촌 있었다고 하며 허준 선조의 묘소가 우근리를 중심으로 도보로 1시간 이내의 거리에 몰려 있다. 그러나 허준 선생의 묘역은 선산 묘역에서 떨어져 있어 당시 서자 출신이라 따로 묘를 조성한 것으로 판단되고 9세손인 허규까지 대대로 하포리에 묻혔으며 지난 2004년 9월 24일에는 묘역정비 공사중에 석축부분에서 회곽묘가 발견되었다.

회곽묘 안에서는 지석이나 유품이 발견되지 않아 피장자는 정확히 알수 없었지만 양천허씨대중회에서는 족보 기록에따라 허준의 아들인 조선 광해군때 파주목사를 지낸 허겸의 묘로 주장하고 있다.

묘를 올라 가는 계단을 막 올라 서면 허준 선생묘를 발견하고 정비하면서 세운비가 있으며 70여평의 부지에 허준 선생부부의 묘 두기와 그 상단에 허준 선생 생모의 묘가 있다.

허준 선생묘 앞에는 표면 상단이 반 정도가 잘려나가고 정1품 보국승록대부의 벼슬에 어울리지 않는 70cm 높이의 묘비와 상석, 향로석이 있으며, 양 옆으로는 문인석이 위치하고 있다.

보국승록대부는 공신에게 주는 최고의 직위로서 1606년에 임금의 병을 치료한 공로로 양평군 정1품 보국승록 대부로 승급했으나 신하들의 반대가 극심하여 선조도 결국 허준의 가자를 보류했다가 1615년 11월 상순에 허준선생이 사망한 후 광해군이 다시 추증하였다. 그리고 아들 허겸이 파주목사를 하였으면 여러 부장품과 비석의 규모가 평민과 달랐어야 했지만 의외로 검소하여 당

시 서출에 대한 묘역 관습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허준선생은 1546(명종1)년 3월 5일 태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양천허씨>의 옛 족 보에는 생졸년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다. 다행히 국립진주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태평회맹도(太平會盟圖: 1604)>의 좌목(座目)에 허준이 기해생(己亥生)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간이 최립(1539~1612)의 <간이집>에 수록된 허준을 송별하며 지은 시 "증송동경태의허양평군환조자의주(贈送同庚大醫許陽平君還朝自義州)"를 참조하면 허준은 최립과 동갑임이 확인된다. 또 허준 선생은 <광해군일기> 7년(1615년) 11월 10일조에 허준의 보국승록대부 추증에 대하여 나오는 것을 보면, 11월 상순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삼목영(三木榮)의 <조선의사연표(朝鮮醫事年表)> p.337에는 허준이 1615년 8월 17일 사망한 것으로 나온다.



망부석

허준 선생이 돌아 가신지 390년이 지난 지금에 이곳 문인석을 보며 허준 드라마에서 의녀 홍춘과 상대역인 임오근(임현식 분)의 얼굴이 떠올르는 것은 드라마에 너무 열중했던 탓 인지도 모르겠다.

드라마의 많은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지만 한국인의 인체와 풍수에 맞는 동의보감을 만들어낸 허준 선생의 끝없는 책임감을 새삼 되새기되고 동양의 의성이라는 허준 선생의 정신이 한국에 있는 모든 의사들의 마음에 심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북쪽 멀리 보이는 산 자락에 그 옛날 마을이 있었음직한 곳에 지금은 군부대 막사가 들어서 있는 곳에서 장병들의 휴일 소란함을 들으며 임진강의 바람으로 마음의 상쾌함을 느낀다. <2005.4.11,>

추가설명

아래 내용은 허준선생의 출생일에 대한 의성허준기념사업회 한대회 사무처장의 민족의학신문 기사를 발췌하였습니다-

허준의 출생년은 그동안 1546년으로 알려지고 있었으나 한 원장은 ‘태평회맹도’ 병풍에 허준이 기해생으로 기록돼 있는 것으로 보아 허준의 출생년은

1539년으로 정정돼야 하며 또한 조선 선조 때 학자인 최립이 저술한 간이문집 8권 휴가록의 내용을 보면 필자인 최립(1539~1612)과 허준이 동갑이란 문구가 나오는데 이를 보아서도 허준의 출생년은 1539년이라는 것이다

## 은둔의 역사가 서린 감악산의 인물들

감악산에는 조선중기 의적이라고 불리던 임꺽정이 관군을 피해 숨어 있다. 그런 이유로 그곳을 임꺽정봉이라고 불려지고 있다. 아마 임꺽정이 양주 출신이라 황해도를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산이 깊고 쉽게 피할 수가 있어 감악산으로 피신하게 되었을 것이다.

임꺽정 말고도 이 곳 감악산으로 숨으려는 사람이 역사에 또 등장한다. 그 중 고려시대 김부식의 아들인 김돈중과 조선 개국시 태조가 중용하려던 남을진이다.

김돈중은 1170년 18대 고려 의종때 정중부 무신난의 단초를 제공하였던 인물로 감악산으로 피신왔다가 노비의 신고로 붙잡혀 살해 당했다.

남을진은 고려의 국운이 기울자 벼슬을 버리고 사천(경기도 양주군 은현면 하패리)으로 은거하여 조선이 개국된 후 수차에 걸친 태조의 부름에도 응하지 않았으며, 그의 절의에 감복한 태조가 사천백에 봉하자 더 깊숙히 감악산에 들어가 세상을 등지고 일생을 살았다.

감악산은 이 이외에도 당나라 장수 설인귀가 이곳에서 태어났다는 설화가 전해지며, 그를 산신으로 숭앙하는 풍습이 전승되고 있다.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도 “감악산사는 민간에 전하기를 신라가 당나라의 설인귀를 산신으로 삼고 있다(紺岳祠諺傳 新羅以唐薛仁貴爲山神)” 는 기록이 남아 있다.

아마 감악산이 산세가 높고 삼국시대부터 한반도의 지배권을 다투던 혈투장으로 거란침입과 최근 한국전쟁시까지에도 치열한 전투가 치루어져 희생자가 많이 발생하여 이 곳이 오래 기억되기 때문일 것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중 어느 구절에 “서울에서 동북쪽으로 설마현(雪馬峴)을 넘어 수십리 지점에 적성현이 있는데 동쪽으론 감악산을 의지하고, 서쪽으론 장단부 큰 강을 누른다. 지역이 궁벽지고 좁은 관계로 백성의 삶이 貧殘하다.” 라 적혀있다 한다. 그만큼 이곳은 오지 중 오지로 전쟁터가 아니라면 쓸모가 거의 없는 땅이다

감악산은 백두대간이 금강산을 향해 달리다가 분수령에서 서남쪽으로 뺀 한 북정맥이 양주에서 갈라져 적성 쪽으로 뺀 산줄기이다 .파주시 적성면과 양주군 남면의 경계에 위치한 해발 675m 산으로 삼국시대부터 명산으로 알려져 왔다.

지역 주민들에게는 감박산으로 더 잘 알려져 있고, 《고려사》나 《동국여지승람》에는 감악으로 표기되어 있다. 또한 조선시대 도성을 중심으로 북악, 송악, 관악, 심악 등과 함께 경기 오악의 하나로 지정되어 있다.

감악산 정상에는 아직도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다. 과거나 현재나 감악산은 아직도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우리는 감악산의 파란만장한 역사를 통하여 파주가 한반도 역사의 중심지라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다.

요즘도 주말에 감악산을 찾는 사람이 많은 것을 보면 누구나 은둔을 꿈꾸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감악산으로 피신하여 숨어 살았던 역사 인물들에 대한 소개를 옮긴다.

### 1. 임걱정 (?~1562)

임걱정은 경기도 양주골 백정인 임돌이의 아들로 태어났다. 원래 이름은 '늬'인데, 부모를 걱정시킨다고 '걱정'이라고 하던 것이 '걱정'으로 되었다.

임걱정은 열 살 때 갓바치의 아들과 결혼한 누이를 따라 서울로 와서 갓바치와 같이 살면서 그에게 글을 배운다. 양주팔은 본래 학식이 높은 데다 묘향산에 가서 도인 이천년에게 천문 지리와 음양 술수를 배우고 와서는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학문에 두루 통달하여 당대의 명망 높은 조광조 등과 교유한다. 걱정은 글공부에는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검술을 익힌다. 이 때 박유복과 이봉학은 임걱정과 의형제가 된다.

갓바치는 기묘사화를 보고 나서 혼란스런 정국을 예견하고 임걱정을 데리고 전국을 유랑한다. 걱정은 곳곳에서 백성들의 고난에 찬 삶의 모습들을 접하게 되며 백두산에 가서 황천왕동이 남매를 만나고 황천동이의 누이 운충과 결혼하여 양주로 돌아와 아들 백손을 낳고 평범하게 산다.

그러나 임걱정은 서른 다섯 살이 되자 여러 도적과 합세하여 봉산 황주 도적이 되며, 38세 때, 6명의 산적 두령과 함께 의형제 결의를 맺는다. 그들은 황해도 산적들의 소굴인 청석골을 차지해서 도적질을 하면서 평산에서 관군과 접전해서 승리한다. 그러는 가운데 한양 나들이를 갔다가 여러 첩을 맞이하여 방탕하게 지낸다. 그러다 다시 청석골로 돌아왔는데, 부하와 부인이 관군에게 잡히는 위기를 당한다. 전옥을 파괴하고 부하와 부인을 구출한 걱정은 위험을 느끼고 소굴을 여러 군데로 분산시킨다. 그 해 관군과의 접전을 벌인 평산 싸움에서 관군이 패하고 임걱정이 승리한다

1559년(명종 14)에는 개성(開城)까지 쳐들어가 도둑질을 하자 포도관(捕盜官) 이억근(李億根)이 군사를 거느리고 그의 소굴을 소탕하러 갔다가 오히려 살해되기도 하였다.

이듬해 8월에는 일당이 서울까지 출몰하였다가 장통방(長通坊, 지금의 종로 2가 부근)에서 아내와 부하들이 체포되었고, 12월에 서울 전옥서에 갇힌 아내와 부하들을 구출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던 중 승례문 밖에서 참모 서림(徐林)이 체포되었고, 이어 황해도에서 형 가도치(加都致)가 순경사 이사증(李思曾)에게 체포되면서 세력이 크게 위축되었다.

1561년에는 임꺽정 일당을 잡기 위해 경기도 · 강원도 · 평안도 · 함경도 · 황해도의 군졸들이 대거 동원되어 소탕작전을 펼쳤다. 이들이 약간이라도 의심가는 사람이면 모두 잡아 가두어 심문을 벌이면서 민심이 흉흉해지고 원망의 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정부에서는 평안도와 황해도의 감사와 병사에게 도적 체포를 일임하고 다른 군사들은 돌아가도록 조치하였다. 1562년 정월에는 토포사(討捕使) 남치근(南致勤)이 구월산으로 도망간 임꺽정을 추격하여 체포하였고, 서울로 압송되어 사형당하였다.

## 2.남을진

남을진은 고려 충렬왕때 의령군으로 봉해진 의령남씨 1세조 남군보의 증손으로서 을번(乙蕃), 을진(乙珍), 을경(乙敬) 3형제가 유명했다

고려조에서 밀직부사를 지냈던 을번은 조선개국 후에 문하시중에 이르렀고, 그의아들 재(在)는 초명이 겸(謙)이었으나 공신으로 봉해지는것을 사면하려고 지방으로 피신하자 태조가 그를 찾으려고 애쓰끝에 살아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반가워 이름을 재(在)로 사명했다고 하며, 임금이 내려준 이름을 공경한다는 뜻으로 자(字)를 경지(敬之)라 했다 한다

아우 을진은 고려의 국운이 기울자 벼슬을 버리고 사천(경기도 양주군 은현면 하패리)으로 은거하여 조선이 개국된 후 수차에 걸친 태조의 부름에도 응하지 않았으며, 그의 절의에 감복한 태조가 사천백에 봉하자 더 깊숙히 감악산에 들어가 세상을 등지고 살며 일생을 마치니 세상 사람들은 그가 거처한 자리를 남선굴(南仙窟)이라 불렀다.

### 3.김돈중

김돈중이 내시직에 있을 때 정중부의 수염을 불태워 그의 원한을 샀던 일은 유명하다. 자식빨밖에 안 되는 새파란 놈에게 무인의 자랑인 수염이 불태워졌으니 이가 갈릴 만하다. 이 원한 때문에 무신란을 일으켰다고도 한다. 그러나 수염이 불태워진 것은 무신란 26년 전의 일이었다.

그 세월을 못 잊어 목숨을 건 난을 일으킬 리는 없다. 수염 사건이 아니라 김돈중은 무신란 3년 전인 의종 21년에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관등제를 하던 날 밤 의종 일행은 봉은사로 갔다가 관풍루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런데 김돈중이 땀던 말은 조련도 덜 된데다 징과 북 치는 소리에 놀라서 뛰다가 어느 기병과 충돌하게 되었다.

그 바람에 기병의 화살통에서 화살이 튀어나가 왕이 타고 가던 가마 옆에 떨어졌다. 깜짝 놀란 의종은 급히 궁으로 돌아와서는 범인 색출에 나섰다.

시내 각처에 방이 붙고 현상금이 걸렸다. 놀라고 겁이 난 김돈중은 사실을 고하지 못했다. 왕의 서슬에 무고한 이들이 체포되었다. 왕의 동생 대녕후 경의 집 하인이 지목돼 죽음을 당했다. 또한 호위병들이 태만하다 하여 견룡, 순검, 지유 등 추위와 배고픔에 떨며 격무에 시달리던 무신들 14명이 귀양 갔다. 무신들이 원한에 사무치지 않을 수 없었다. 무신들의 집단적 반란의 기운은 이때 더욱 증폭됐을 것이다.

김돈중은 앞에서 기술된 환관과 내시처럼 권세 자랑은 하지 않았지만 그 폐해는 더욱 컸던 것이다. 앞서 정함이 합문지후에 임명됐을 때는 그도 문벌귀족이라고(김부식 집안은 고려에서도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문벌귀족이었다.) 고신에서 명하지 않아 직급이 떨어지기도 했다.

시어사에서 호부원외랑으로 강직되었던 것이다. 그러자 아버지 김부식이 창건한 관란사를 중수하고 왕을 위해 복을 빌었다. 물론 소문을 냈다. 의종이 관란사를 찾았을 때는 근처의 주민을 강제 동원해 소나무, 잣나무, 삼나무, 젓나무 등 기이한 화초를 이식하고 왕이 휴식할 이궁까지 신축하였다. 섬돌은 모두 기괴한 돌로 만들었다.

장막과 그릇, 집이 모두 사치스럽고 진기한 것이었다. 강제 노역에 동원된 백성들의 고초가 심했을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런 김돈중이 무신들에게 곱게 보일 리 없었다. 무신란 직후 그는 감악산으로 도망갔지만 집종의 밀고로 붙잡혀 살해 당했다.<2009.9.27,>



### 장희빈을 밀어 낸 소령원을 찾아

봄 별이 화사한 토요일에 조선시대 21대 영조대왕의 생모인 숙빈 최씨의 제사가 광탄면 영장리 소령원에서 있었다. 작년까지는 전주이씨 종친회 파주분원에서 제례를 맡아서 봉향하였지만, 올해부터는 전주이씨대동 종약원에서 제례를 지내기로 하였다고 한다.

보통 유교적인 관습에 따라 일반인의 제사는 자시(밤 11시 ~ 새벽1시)에 지내고 정승 이상의 벼슬을 한 계층만 낮에 제사를 지낸다고 한다. 소령원은 숙종의 후궁인 숙빈최씨가 1718년(숙종44년) 3월 9일(?19일)에 49세로 별세하여 당시 양주 땅 이었던 이곳에 장사를 지냈다.



숙빈최씨 봉분

숙빈 최씨는 숙종 비 인현왕후의 궁인이었다. 인현왕후가 폐비되어 사가에 나가 있을 때, 숙종이 우연히 밤에 후원을 거닐다가 밤중에 부엌에서 음식을 마련하는 최씨를 발견하였다. 이상하게 여긴 숙종이 물어서, 인현왕후의 궁녀라는 것과 내일이 인현왕후 생일이어서 아침밥 준비를 한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숙종이 "인현왕후가 죄가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최씨는 "죄의 유무를 어찌 알겠습니까마는 저를 따라오셔서 보시면 알 것입니다." 하고 대답했다. 곧 숙종이 최씨를 따라 토굴 속을 들여다보니, 벽에 인현왕후의 화상을 붙이고 장희빈이 활로 쏘고 있었다.



숙빈 최씨 묘비

그 길로 돌아와 숙종은 최씨에게 동침을 요구했다. 최씨가 "옛 주인을 밖에 내보내 놓고 어찌 감히 임금을 모시겠습니까?" 하면서 거절했다. 그래서 숙종은 인현왕후를 복위시켰다는 약속을 하고 그날 밤 동침했다.

하루는 숙종이 낮잠을 자는데 꿈에 황룡이 큰항아리 밑에 치어 나오지 못하고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꿈을 깬 숙종이 뒤뜰에 나가 보

니 과연 큰항아리가 얹어져 있기에, 뒤집게 하니 최씨가 그 속에 갇혀 거의 기진한 상태였다.

장희빈이 질투해 한 것이었고, 이 때 최씨는 임신한 상태였다. 곧 침전에 데려다가 깨어나게 했고, 이듬해 1694년에 아들이 태어났다.(이 아이가 뒤에 영조 임금임.) 그리고 인현왕후가 복위되었다가 얼마 후 사망하고, 장희빈은 저주 사건이 탄로되어 사사(賜死)되었다. (김현룡, 한국문헌설화3, 건대출판부, 1998. 69-70쪽.)

이와 같이 숙빈최씨는 의리와 책임을 다하는 성품으로 어려서 고아가 되었으며 7세에 궁에 들어와서 궁녀로서의 최고의 지위인 숙빈까지 오르게 된 행운아로 요즘 TV드라마에서 평범한 여자가 재벌가 아들의 애인이 되는 신분상승의 전형적인 모델이 된다.

영조는 1694년(숙종 20년) 9월 13일 창덕궁에서 숙빈최씨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으며 이복 형인 경종(20대왕)이 병약하고 아들이 없어 세자로 책봉되어 연잉군이 되었고 숙빈최씨가 죽자 3년간 시묘살이를 한 효자이기도 하다. 그러나 세자로 책봉된 연잉군은 노론과 소론의 정치적 소용돌이에서 위험을 느끼고 있어 시묘살이를 이유로 소령원 깊은 산중으로 피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마을에 전하는 얘기로는 영조가 시묘 살이를 하는 중에도 자객의 기습이 몇 차례나 있었으나, 그때마다 동네 개들이 일제히 짖어 위험을 알렸고, 마을에 장사가 숨어 지내다 자객들을 물리치곤 했다고 한다. 그래서 영조는 이 마을 사람들을 매우 고맙게 생각했다고 한다.

영조대왕은 즉위하자 죽은 후에도 왕비가 될 수 없는 어머니를 위해 최초로 육상묘(毓祥廟)를 건립해(현재 서울 종로구 궁정동 1-1 칠궁(七宮)) 후궁으로 왕의 어머니가 된 신위를 모시는 곳을 만들었고, 소령원 묘소 동남편에 친필 비각을 4곳에다 세웠다고 하며 명복을 빌기 위하여 보광사를



제관들

증수하는 한편 어실각을 짓고 매년 백중날 절에서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

과주에는 황희 정승, 율곡 선생, 윤관 장군 등의 인물들이 있어, 제향 지내는 것을 볼 기회가 있었지만 이곳 제향은 왕실의 제례의 규모나 복잡, 제기와 형식

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제향은 제사를 지내기 위한 수복방에서 헌관목록 작성해서 문밖에 게시하고 이 곳에서 헌관(제사 지내는 3인)과 집사자들이 옷을 갈아 입은 후 축함을 들고 대열을 맞추어 입장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제례는 1시간 정도 소요되는데 옛날에는 상당히 엄숙한 행사로 진행되어 왕실의 정통을 과시하였을 것이다. 또한 유교적인 전통의 의례가 조선시대의 정치가와 관료에게 뿌리 깊은 계급사회 구조를 만들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제관들의 배치

숙빈 최씨 제사가 끝나면 영조의 후궁인 정빈이씨의 묘인 수길원에서 또 다시 제사를 지내기로 되어있는데, 벌써 오후12시가 넘어가고 있다.

재실은 일반과는 달리 T자형태로 되어 있고 뒷문을 열어 멀리 묘지를 재실을 통해서 바라보며 제례를 지내게 된다. 재실 앞에서 절을 하는 참배객에게는 저절로 숭배의 마음을 갖게 한다.



재실에서 바라본 봉분

제례가 끝나자 잘 관리된 잔디와 100여년 넘은 전나무 옆을 걸어서 숙빈최씨의 묘지로 올라 갔다. 묘지는 재실에서 100여m 동산 8부 능선쪽에 위치하고 아담한 담장 앞으로 봉분과 호랑이 모양의

석호, 양모양의 석양이 옆으로 설치되어 있고, 봉분 정면에는 비석, 상석, 향로석, 장명등과 그 좌우에는 망주석, 문인석, 석마가 대칭으로 세워져 있다.

봉분 주위의 석물들은 3백여년의 풍상을 알아 볼 수 있도록 곱팡이가 무성하

고 주변의 오래된 소나무와 벚꽃 나무는 봉분의 주인인 숙빈최씨의 단아함을 말해 주는 듯 하며 옛 전통의 정원을 보는 착각을 느끼게 한다.

봉분 바로 앞에서 재실 쪽을 바라보면 잔디 위로 나타나는 능선의 모양과 양 옆으로 자란 소나무와 전나무가 황금분할의 조화로 어머니의 품안에 안긴 것처럼 편안함 마음이 든다.

봉분에서 비각을 보고 이곳 재실 옆에 있는 약수터에 내려가서 물을 마셨다. 약수터 위쪽으로는 나무들이 우거져 있고 전혀 인공적인 시설이 없어 물맛은 무색무취의 가장 좋은 물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봉분에서 본 재실

전나무가 뺨뺨한 입구를 좀 지나면 왼쪽으로 수길원이 있고, 약 30m만 지나면 오른쪽으로 굳게 닫힌 비각이 나타나고 이곳에는 영조가 생모를 애뜻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친필로 쓴 비석이 있다고 한다.

우연한 기회에 숙빈최씨의 제사날을 맞추어 답사를 할 수 있었던 운 좋은 하루였다. 살아 있는 사람들이 제사를 통하여 죽은 사람들의 좋은 점을 기억하면서 자신을 돌아 보는 기회가 되듯이 문화유산의 답사도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좋은 방법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한다 < 2005.5.3,>

## 기생 홍량의 지독한 사랑

파주의 여인들 1편

파주에는 홍량(洪娘)이라는 조선시대 기생의 묘가 있다. 조선시대의 기생은 '관물(官物)' 취급을 받는 노비와 다름없는 천민신분이다. 그러나 기생은 미모와 지혜를 갖추고 선비와 풍류를 나누면서 양반사회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



홍량의 묘

홍량은 황진이, 매창과 함께 조선 3대기녀로 불리는 기생으로 정절의 의무가 없지만 최경창과 짧은 인연을 맺은 후 일부종사한 여자이다. 당시에는 "살아서는 천민이지만 죽어서 양반된 사람은 홍량 한사람뿐이다."라고 알려져 있다.

홍량은 함경도 홍원 출신으로 어려서 홀어머니를 봉양하다가 12살에 어머니가 죽자 그 지역의 관아인 북도평사의 기생으로 입적하였다. 그 후 16세가 넘던 가을에 홍량은 당시 율곡 이이, 송익필과 함께 하는 조선 중기 8대 문장가이던 고죽 최경창을 만나게 되었다.

최경창은 병마절도사 보좌관으로 대개 2년이면 순환보직 되는 자리였고 어느 날 고을 원님이 초청한 술자리에서 홍량을 만났다. 두 사람은 가을에 만나 이듬해 봄에 보직을 마치면서 헤어지게 되었다. 이때 홍량은 최경창을 따라 한양까지 동행하였다가 함경도에 돌아 오는 길에 함관령에서 송별시를 지어 보냈다.

산버들 곱게 꺾어 보내노니  
주무시는 창밖에 심어두고 보소서  
밤비에 새잎 나거든 나인가 여기서서

이렇게 이별의 아픔과 사랑을 표현한 이 시는 당시의 신분을 떠나 둘의 각별한 감정을 표현한 글이다. 현대의 남녀라면 창밖에 심어 두는 것이 아니라 방안에 심어 두라 하였을 것이다. 최병창은 이 시를 한문으로 옮겨 놓은 후 '변방곡'이라 하였고 '송별'이라는 답시를 보냈다.

말없이 마주보며 유란을 주노라.  
오늘 하늘 끝으로 떠나고 나면 언제 돌아오라.  
함관령의 옛 노래를 부르지 마라.  
지금까지 비구름에 청산이 어둡나니.



홍랑 시비

최경창은 다음 해에 병이 들어 겨울까지 자리에서 일어 나지 못하게 되었다. 그 소식을 들은 홍랑은 7일 밤낮을 걸어 한양에 들어와서 병 수발을 하였다. 그러나 1576년 봄에 사헌부는 최경창이 북방의 관기를 도성에 들여와 살게 한 것을 상소하여 파직시켰다. 최경창은 비천한 신분의 홍랑이었지만 자신의 명예를 버리고 사랑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홍랑과 또 한 차례 이별하게 되었다.

파직 당한 최경창은 본래의 깨끗한 성품을 인정받아 복직하게되었고 몇 번 변방의 한직으로 근무하다가 1583년 45세의 나이로 객사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홍랑은 파주의 무덤에 찾아와 대성통곡하고 자신의 얼굴에 상처를 내어 흉한 모습을 한채로 시묘살이를 시작하였다.

홍랑이 시묘살이를 한지 9년이 되던해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최경창의 유작들을 모아 고향으로 피난하였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최경창의 유작을 가족에게 전하였고 홍랑이 죽자 해주 최씨 문중은 그녀가 비록 천한 신분의 관기였으나

집안 사람으로 여겨 최경창 부부의 합장묘 바로 아래 홍량의 무덤을 만들어 주고 제사를 지내 주었다.

파 주 다 울 동  
홍 량 시 비 - 홍  
량-PHOSTO

홍량의 시조는 고  
등학교 국어 교과  
서에도 실렸으며  
지난 2000년11월  
한글로 된 시 원본  
이 발견되면서 세  
상에 더 알려



최경창 송덕비

졌다. 지금도 여러 블로그를 보면 홍량의 묘에는 발 걸음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4백년전 조선의 유교적 질서 속에서도 제도와 신분의 한계를 넘어서 이룬 사랑과 이별 이야기가 21세기 지금은 그 옛날 교과서적인 이야기로 치부될 수 있다. 현대사회는 사람이 넘치면서 서로 쉽게 만나거나 이별을 겪는다. 그렇지만 홍량처럼 누구나 변함 없이 늘 자신을 지켜주고 바라보아 주는 그런 사랑을 마음에 그린다.<2012.12.22 >

## 화완옹주가 사랑한 권력

파주의 여인들 2편

조선 오백년 역사중 조정의 관료나 평민과 결혼해야 하는 공주나 옹주가 권력을 행사한 것은 화완옹주가 유일무이하다. 화완 옹주는 영조와 선희궁 이씨의 막내딸이며 사도세자의 친 여동생이다.



경복궁

화완옹주에 관한 이야기는 2007년 9월에 MBC에서 방영한 이산이라는 드라마에서 정조의 왕위 계승 전후로 등장하고 있다. 이 드라마는 당시 시청률

이 30%를 넘나 드는 인기작으로 정조의 어린 시절과 아버지 사도세자의 죽음, 암살 음모를 견뎌낸 세손 시절 등이 속도감 있게 전개되고 있다.

영조는 왕비로 정성왕후와 선희궁 이씨 둘 사이에 2남6녀를 두었으며 딸 중에는 화평옹주를 가장 이뻐하였고 결혼 후에도 사위와 궁궐에 살도록 하였다.

몇 년후 왕위를 이을 효장세자와 화평옹주를 비롯한 옹주들이 요절하였고 나중에 궁녀들이 세자와 옹주들을 저주해서 음식물에 독을 넣었다는 것이 나중에 발각되었다. 이 중 막내인 화완옹주는 혼자만 남게 되었고 영조의 병적인 사랑을 한 몸에 받게 된 것이다.



화완옹주 묘소



화완옹주는 화평옹주보다 애교가 많아 영조의 사랑을 독차지 했지만 오만방자하고 질투심이 많은 성격이었다. 화완옹주가 우의정인 정우량의 둘째 아들인 정치달과 결혼하여 출궁하였지만 영조는 궁궐에 별도로 방을 마련해 주어었다.

결혼한 화완옹주는 7년만에 딸을 낳았지만 곧 사망하였고 남편마저도 다음해에 요절하였다. 영조는 효민이라는 시호를 주면서 애통해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왕족이 후손이 없으면 양자를 들일 수 있다는 궁중법도에 따라 남편 집안이지만 어부의 아들인 정후겸을 양자로 입적하였다.



화완옹주 묘소 주변 석물

영조는 화완옹주가 남편과 사별하자 양자와 함께 궁궐로 들어와 살게 하였다. 이때가 사도세자의 아들인 이산(후일 정조대왕) 이 6살이고 양아들인 정후겸은 9살이었다.

화완옹주가 양자인 정후겸과 함께 입궐하면서 궁궐은 노론파와 소론파에게 권력투쟁의 불을 붙이게 되었다. 영조는 숙비최씨인 친모가 무술이 출신이라는 약점이 있으나 노론의 지지로 왕위에 올랐다. 그러나 둘째 아들인 사도세자는 소론을 지지하면서 아버지 영조와 갈등이 깊어지고 있었다.

그럴 즈음에 화완옹주는 노론파와 손을 잡고 자신의 권력욕을 채워가기 시작하였다. 화완옹주 입장에서는 어릴때 언니들이 총애를 받았고, 남편과 아이가 죽음으로서 비참해진 상태였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감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정치판에 들어 설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조선시대에 일반 평민은 재혼이 허락되었으나 왕족은 재혼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런 이유로 화완옹주는 평생을 정치에만 신경을 쓸 수 밖에 없었고 양자인 정후겸은 처세술이 뛰어났을뿐 아니라 정조와는 3살 차이지만 어부 출신이라는 콤플렉스로 라이벌 의식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노론파는 소론파를 지지하는 사도세자의 마음을 돌리려고 끊임 없이 노력하였고 여러가지 방법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자 사도세자를 폐위하거나 죽게하는 것 밖에 없었다. 화완옹주는 계비인 정순왕후 집안과, 후궁 문숙의, 노론파의

신하들과 한패거리가 되어 영조와 사도세자와 사이를 이간질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다.

이 무렵에 화완옹주는 아버지의 총애로 권력을 갖게 되었지만 오빠인 사도세자가 왕위에 오르면 자신은 여자이기때문에 갖었던 권력을 포기해야되는 것이 안타까웠을 것이다.

화완옹주가 입궐하고 5년후에는 결국 사도세자(思悼世子)는 뒤주에 갇혀 아사 당하는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다.

화완옹주는 입궐하고서 자신 조카인 이산(후일 정조)을 귀여워하고 보살피 주었으며 양자인 정후겸과 창경궁에서 함께 놀았던 사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정조에게는 잘해 주면서도 왕비인 효의왕후 김씨를 미워하고 괴롭혔다.



담장

한편 정후겸은 고위직 관리들의 자녀를 기용하는 음서로 관직에 올랐으며, 일찍부터 영특하고 언변에 능하여 외할아버지격인 영조의 총애를 받아 16세로 장원봉사로 17세에는 수찬에 자리 올랐다. 이어 홍문관부교리와 사헌부 지평을 역임하고 이후 화완옹주의 양자라는 배경으로 19세의 어린 나이에 당상관으로 진급하여 승정원좌승지에 올랐으며, 이후 승승장구해 20대의 나이에 병조 참판에 올라 당대의 실권자로 성장했다.

사도세자(思悼世子)가 죽은 후 화완옹주(和緩翁主)는 본격적으로 막후실세가 되고 영조는 여전히 화완옹주(和緩翁主)를 아껴 영조 말년의 정사는 화완옹주(和緩翁主)의 치마폭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을 정도다.

파주 파주읍 화평옹주묘- 화완옹주-포스트

그런데 영조는 사도세자(思悼世子)를 죽인것에 대해 후회하고 가슴아파하던 터라 사도세자(思悼世子)의 아들인 정조를 세손으로 삼는다. 이러한 영조의 의지를 꺾을 수 없자 노론과 신하들과 함께 화완옹주(和緩翁主)는 그의 양자인 정후겸을 앞세워 어떻게서든 정조를 없애려고 갖은 술책을 부린다.

정조가 거처하는 동궁에 에 사람을 심어두고 세손을 감시하였고, 자객을 침투

시켜 세손을 제거하려다가 실패하였다. 이후에는 유언비어를 퍼뜨려 세손의 비행을 유포하고 정조의 최측근인 홍국영을 탄핵하는 등 주변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

노론파들의 목숨을 건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조는 정조를 24세에 대리청정을 맡기고 병권과 순감권을 넘겨 주면 왕의 권한을 갖게 하였다. 다음 해에는 영조가 83세 승하하자 25살의 나이로 제22대 정조 임금으로 즉위하였다.

정조 즉위후 대리청정을 방해하고 측근인 홍국영을 제거하려 했다는 죄목으로 고모인 화완옹주는 평민으로 신분을 강등하였으며 처음에 제주도로 유배시켰다가 강화도 교동, 다음에 육지인 파주로 유배지를 옮겨 주었다. 이와 함께 양자 정후겸은 함경도로 유배하였다가 사사 당하였고, 정조를 제거하려던 노론파 대부분은 주살되거나 유배되었다.

조정의 삼사의 대신들은 화완옹주를 극형에 처해야한다고 상소가 계속되었으나 정조 즉위 24년에



화완옹주 분묘 원경

화완옹주의 죄를 용서하라는 하교를 내리고 궁으로 들어와 살게 하였다. 정조가 사망하고 순조도 탄핵이 있었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순조실록에는 1808년 5월에 삼사에서 올린 글에서 정치달의 처가 죽어 더 이상 죄를 묻지 않는다는 구절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화완옹주는 60세가 넘어서 석방되었고 그 후 10여년을 더 살았을 것이다. 아버지인 영조의 후광으로 옹주로서 조선의 권력을 쥐락펴락 했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몰락하게 되었다. 권력을 사사롭게 또 잘못 써봐야 권력의 힘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알게 된다고 한다.

화완옹주가 양자인 정후겸과 노론파의 권력욕은 사도세자를 뒤주에서 죽게한 결정적인 요인이다. 권력의 속성이 생존경쟁의 일부라고 하지만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혈육을 죽게 한다는 것은 지나친 욕심 일 것이다.

조카인 정조가 혈육에 대한 불운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화완옹주를

끝까지 보호하였기 때문에 그 시대에 장수하였고 사후에는 남편 정치달의 묘가 있는 파주시 문산읍 사목리에 합장하였다. 그러나 묘비 전면에는 한줄을 비워두고 오른쪽으로 치우쳐 두줄로 남편인 일성위 정치달의 묘라고 표시되어 있다. 아마 화완옹주가 묻힐 것에 대비하여 묘비 공간을 남겨 놓았으나 그 후 옹주가 죽어 이곳에 묻혔으나 추기를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조리읍 영릉

눈이 제법 내려 아직 녹지 않은 흐릿한 날에 화완옹주와

화평옹주의 묘를 찾았다. 날씨가 화창한 날 방문하려 했지만 화평옹주의 묘가 군부대에 있는 관계로 일정을 편하게 정할 수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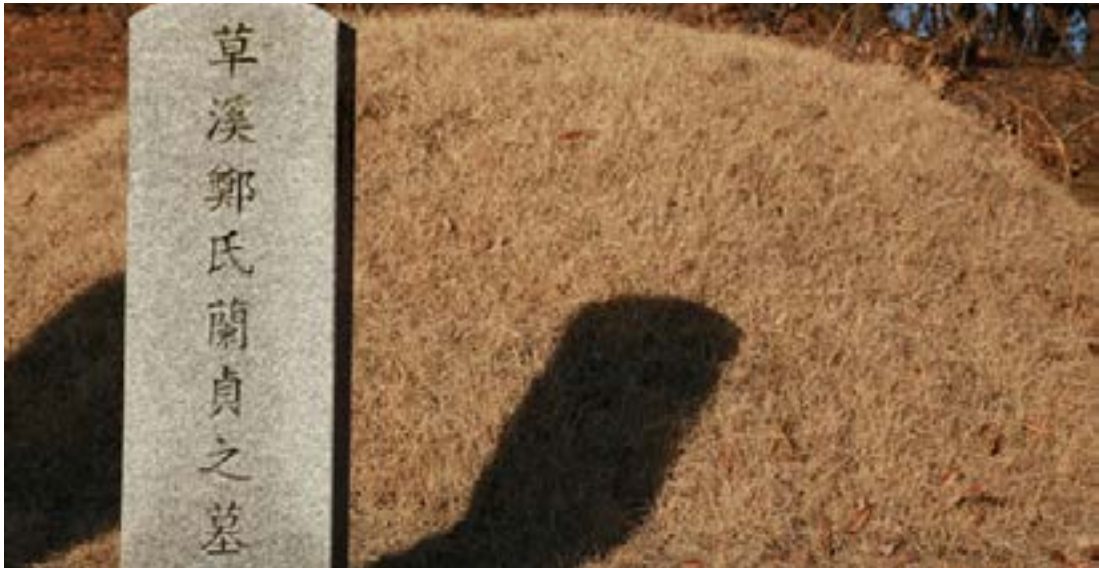
이백오십여년 전의 화완옹주의 행적을 찾아 보면서 특정한 인물의 혈연과 권력욕은 백성의 뜻과 전혀 다르게 되풀이 되는 역사를 보게 되었다. 또 파주에는 영조가 총애했던 화평옹주와 옹주로서 조선의 권력을 흔들었던 화완옹주의 묘가 문산과 파주리에 가까이 있고 영조의 생모인 숙빈 최씨 묘 소령원과 큰 아들인 진종의 묘 영릉이 광탄과 조리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2013.1. 13 >

## 조선을 바꾼 여인 정난정

파주의 여인들 3편

파주 교하지역 당하동에는 조선시대 유명했던 정난정(?~1565)의 묘가 있다. 정난정은 < 조선왕조 오백년 - 풍란,1985년>과 < 여인천하,2001년>이라는 TV드라마 소재로 나와 높은 시청률을 올리기도 하였다.

정난정의 아버지 정윤겸은 도총부 부총관을 역임한 양반이었지만 어머니는 군영에 소속된 관비였다. 조선은 양반의 수를 제한하기 위해 양반과 천민중에 난자식은 천민의 신분에 따른다는 종모법을 시행했다.



정난정 묘비

이 시대에 살아온 황진이(?1506~1567)도 천민 출신으로 기생으로 끝났지만 정난정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외명부에 정경부인으로 등재 되기도 하였다. 두 여인이 비록 천민 출신이지만 삶의 질곡은 너무나 다르게 살아 왔다.

정난정은 대대로 이어지는 천민 신분을 벗어 나기 위해 집을 나와 기생으로 입적하였고 문정왕후의 동생인 윤원형의 눈에 들어 첩이 되었다. 그 후에 본부인 김씨를 몰아내고 자신이 정처가 되었고 자신의 자녀를 적자녀로 올리는 등 천민에서 벗어 나려고 노력하였다.

윤원형의 천거로 문정왕후의 궁궐을 자유롭게 출입하면서 그녀의 권세는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올라가고 있었다. 당시에 그녀의 권력에 힘입으려고 사돈이 되려고 하는 양반들이 많이 있었고, 이런 권세로 그녀는 많은 재산을 모으며 부귀

를 누렸다. 그러나 유교사회의 사대부들은 그녀를 연산군의 후궁 장녹수와 광해군때 상궁인 김개시처럼 악녀로 불렀다.

윤원형은 누나인 문정왕후의 수태불공을 드리러 봉선사에 갔다가 보우대사의 소개로 정난정을 알게 되었다. 처음 본 정난정이 마음에 들자 윤



좌측 윤원형 묘비와 뒷쪽 정난정 묘

원형은 중전 윤씨의 동생이라는 신분으로 당시 도총관이었던 정난정 부친에게 소실로 줄 것을 애청하였다. 이에 정난정은 아들을 낳으면 정실부인이 되게 해준다는 서약서를 받고 첩 소실이 되었다.

정난정이 혼기가 되었을때 주위에서 청혼이 많았지만 모두 소실로 가는 혼사이어서 매몰차게 거절 했었다고 한다. 그러나 윤원형이 자신과 같이 불교에 대한 신앙심이 깊고 천민을 무시하지 않은 성격과 신분상승의 기회를 갖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때문에 소실도 마다하지 않았을 것이다.

정난정이 낳은 자식들은 종모법에 따라 천적에 오를 수 밖에 없었지만 문정왕후를 통하여 다른 적자에게 통혼할 수 있는 전교를 내리게 하여 천인을 벗어날 수 있게되었다.. 또 이것에 만족하지 않고 윤원형에게 서자도 적자와 같이 벼슬길에 오를 수 있도록 '서얼허통법'을 상소하여 당시 신분제도의 근간을 바꾸게 하였다.



서울 노원구 문정왕후 묘소

그러나 사대부들은 정난정이 문정왕후를 이용하여 불교를 재건하려 했을뿐 아니라 적자와 서자의 구별을 철폐한 배후로 지목하고 문정왕후가 죽기만을 기다렸다.

정난정이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남편 윤원형의 누나이면서 중종의 3번째 왕비인 문정왕후가 있었기 때문이다. 문정왕후는 아들인 명종이 10살에 왕위를 계승하자 수렴첨정을 명분으로 조정의 권력을 한 손에 잡았다.

문정왕후는 궁중에서 개인적으로 불교를 신봉하였지만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있었고 정난정이 해마다 2~3차례씩 한강에 가서 물고기에게 밥을 주는 공양을 매우 기특하게 생각하였다. 이에 정난정은 문정왕후의 불교에 대한 깊은 신앙심을 알아차리고 자신을 윤원형에게 소개했던 보우대사를 문정왕후에 알현시켰다. 문정왕후는 그를 선종판사로 등용하고 불교를 공개적으로 부흥 시켰을뿐 아니라 도첩제를 부활시켜 승려들의 신분을 보장하였다.



양주 회암사지 정문 계단

명종의 아들 순회세자가 13살에 죽고 즉위한지 20년이 되어도 후사가 없자 문정왕후는 보우대사와 함께 양주 회암사에서 많은 시주를 하는 무차대회를 열어 득남을 기원하였다.

문정왕후는 조선의 사직을 잇기 위해 기도행사를 간절한 마음에서 지냈지만 수십일이 지나면서 병환이 생겨 갑자기 사망하게 되었다.

1965년 문정왕후가 죽자 조정에서는 명종의 뜻을 알아 차리고 그동안의 외척의 악행을 정리하기 시작하였다. 우선 승려 보우는 제주도로 귀양보내 사사시켰고 정난정은 본래 신분인 천인으로 강등시켰다. 이후에도 계속적인 사대부의 탄핵으로 남편 윤원형과 함께 황해도 강음 (현재 금천)으로 유배 되었다. 그러나 윤원형의 전 부인인 연안 김씨의 계모 강씨가 정난정이 김씨를 독살했다고 의금부 고발했다. 이 사건으로 점차 불리해지자 평상시 몸에 갖고 있던 독약을 먹고 자결했다. 전 부인을 독살한 것은 윤원형도 알고 있었고 정난정은 이 사건



정난정묘비와 동전

으로 고문을 당할것이 두려워 늘 비산을 지니고 다녔었다. 어느 날 집안 하인이 잘못 알고 의금부에서 잡으러 온다고 알리는 바람에 급히 자살하였고 윤원형도 술에 탄 독을 마시고 곧 자결했다고 한다.

정난정에 대한 사대부의 평가는 후하지 않았다. 그들은 '출세를 위해 권력자를 유혹한 여인' 또는 '윤원형의 본처를 독살한 표독스런 여자'로 말하지만 그녀가 영리하였고 불교에 대한 신임심이 깊었기 때문에 문정왕후가 그녀를 앞세워 불교를 중흥하려고 했었을 것이다.또 양반가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 놓은 서자 차별법을 바꾸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 여인으로도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다.

정난정의 묘는 파평윤씨 정정공파 묘역에 있는 윤원형의 묘 옆 뒤에 일반인 크기의 봉분과 비석으로 이루어져있다. 전체적인 형상은 윤원형의 묘역에 포함되어 있으나 본처가 아니라서 합장은 되지 않은것 같다. 정난정의 묘에는 당시 묘비가 없었지만 후손들이 윤원형의 부인으로 인정하여 비석을 세웠다고 한다.

정난정은 다른 여인들과는 달리 기가 넘친다고 한다. 지금도 그녀의 기를 받기 위해 정난정의 묘에서 기도하는 이가 있다. 추운 겨울날에도 정난정 묘비에는



오백원짜리 동전이 올려져 있었다. 아직까지 정난정은 그 시대의 기운을 갖다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 < 2013. 2. 4 >

**색다른 파주이야기**  
[www.pajuiyagi.com](http://www.pajuiyagi.com)